

방송 프로그램 제목 언어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I . 전체 개관

전체 방송언어에서 문자언어 분야는 자막과 문패, 제목 정도다. 그렇지만 동시성과 전파성이 강하며, 더구나 프로그램 제목(이하 ‘꼭지 제목’, 또는 ‘꼭지 이름’을 같이 씀) 가운데는 몇 달이고 반복해서 내보내는 게 많은 까닭에 방송언어에서도 무겁게 다뤄야 할 분야다.

이번에 지상파 네 방송사 채널 다섯 곳 16~21년치 방송 꼭지 제목들(1만3000여 건)을 살핀바, 일반언어나 방송언어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목에 그대로 몽똥그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어, 표기방식, 짜임새에서 두루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곧 한자·로마자·아라비아숫자 쓰기가 두드러지고, 말을 짧게 줄이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긴 제목들이 많았으며, 말차레가 뒤바뀐 사례가 잦았고, 외래어를 쓰는 비율이 높았으며, 출처 불명의 조어들이 어린이 방송을 비롯하여 제목 전반에서 눈에 띄었다.

표기에서 두세 가지 글자 쓰임을 보이는 것과 서양 외래어나 이를 섞은 제목의 비율(한자어 제외)이 전체적으로 50%(198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42.6%→42.2%→54.2%→60.2%)를 넘어서는 혼탁상을 보였다. 여기에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표현에서 무리가 따르는 것이 많았고, 차별적인 용어가 자주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된 연유는 시대풍조 탓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 분야를 방송사 안팎에서 방치한 연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분석 갈래와 분석틀, 원본 확정 과정들은 일러두기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줄인다.

Ⅱ. 전체 분석

1.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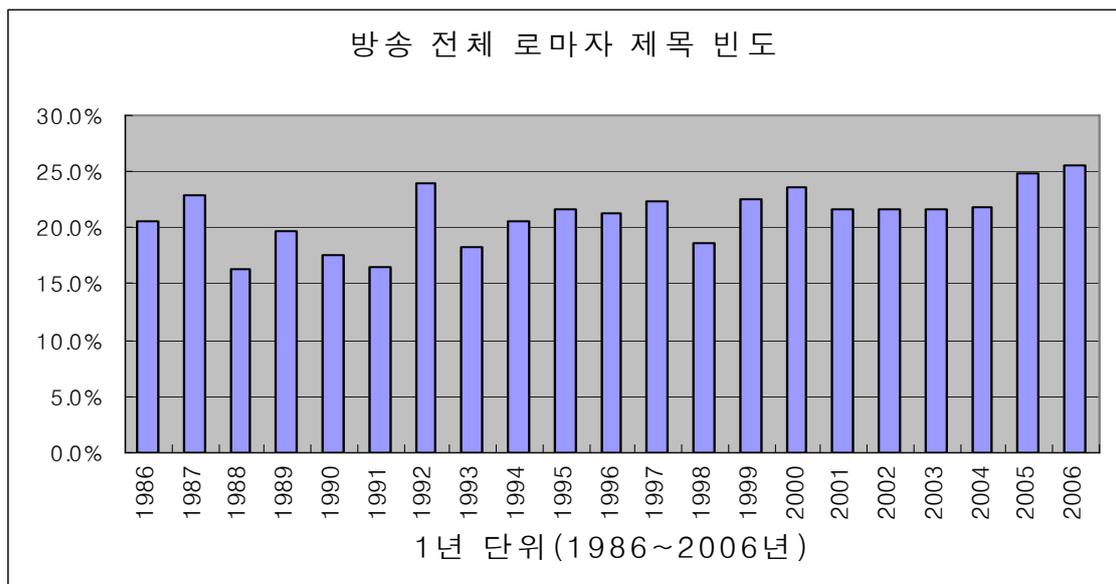
1-1. 표기

조사대상 프로그램 1만3639편의 전체 어절 수는 2만8766개였으며, 어절 종류는 9416개였다. 전체 어절 2만8766개 중 외래어 수는 1만4161개였으며, 어절 종류는 2362개였다. (외래어 가운데 한자어는 넣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 전체의 16.17%였다. 한글이 아닌 표기는 아라비아숫자·로마자·한자·기타들이 보였다.

아라비아숫자(0~9)가 뜻밖에도 전체 어절의 4.80%를 차지했다. 이는 횡수·횡수·날짜·시간이 방송 쪽지 이름에 흔히 쓰임을 나타낸다.

로마자는 소문자를 포함한 A부터 Z까지 낱자와 각종 낱말을 포함한 수치가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이는 각 방송사 약칭 또는 글자상징을 KBS·MBC·SBS·EBS로 나타내는데다, TV·PD ... 따위가 섞여들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ALL, FUN, CITY, SEX, TOP, TWO, ONE, NOW, GOOD, DIVAS, Castle, VJ, NG ... 등도 술하다.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 표기를 합치면 전체 어휘의 11.42%를 차지했다.



한자 표기는 家庭을 비롯하여 希望音樂에 이르기까지 각종 어절이 보였는데, 이는 전체의 4.75%에 이르렀다.

기타 기호 등 표기((# @ * © & ☆ VI …)는 0.01% 이하이나 문패에 딸린 각각의 꼭지 이름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한글 아닌 표기 수치를 모두 합쳤을 때 전체 가운데 16.17%를 차지했다. 여기서 한자 표기(4.75%)는 1995년까지 기본방송표(한국방송 1, 2)에서 한자말을 대체로 한자로 표기한 까닭에 나온 수치로서, 이를 제외하면 한자 표기 수치는 전체의 1%로 이하로 줄어든다. 한국방송에 확인한바, 실제 방송 화면에서 한자 표기로 나간 비율은 기본방송 순서표의 4분의 1 이하였다.

1-2. 어절 분포

가나다 차례 어절수는 보통 국어사전의 낱말수 비율과 비슷했으나 ‘라디오~링컨 센터’(누적치 36.65~37.47%) 카~킹의(87.56~89.52%) 타고~팅구(89.54~93.67%) 파고~핑키(93.68~95.42%) 쪽에서 보통보다 수치가 상당히 늘어난 게 특징이다. 이는 다른 쪽에도 서양 외래어가 많이 늘어났지만, 특히 우리말 어휘 수가 적은 이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었다. 또한 외래어 표기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된소리(경음)를 쓰지 않게 한 데서도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표> 사용 빈도가 높은 어절 (전체 2만8766 어절 / 전체 9416 종)

빈도순	어절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KBS	436	1.52%	1.52%
2	뉴스	433	1.51%	3.02%
3	MBC	409	1.42%	4.44%
4	특집	315	1.10%	5.54%
5	SBS	302	1.05%	6.59%
6	드라마	268	0.93%	7.52%
7	스포츠	188	0.65%	8.17%
8	생방송	170	0.59%	8.76%
9	TV	161	0.56%	9.32%
10	미니시리즈	158	0.55%	9.87%
11	다큐멘터리	136	0.47%	10.35%
12	드라마시터	113	0.39%	10.74%
13	세계	111	0.39%	11.12%
14	사랑의	105	0.37%	11.49%

15	스페셜	104	0.36%	11.85%
16	아침	91	0.32%	12.17%
17	쇼	86	0.30%	12.47%
18	세상	80	0.28%	12.74%
19	사랑	75	0.26%	13.00%
20	콘서트	74	0.26%	13.26%
21	EBS	71	0.25%	13.51%
22	도전	69	0.24%	13.75%
23	특별기획	69	0.24%	13.99%
24	퀴즈	68	0.24%	14.23%
25	우리	67	0.23%	14.46%
26	이야기	63	0.22%	14.68%
27	2TV	63	0.22%	14.90%
28	월드컵	63	0.22%	15.12%
29	어린이	63	0.22%	15.33%
30	양코르	62	0.22%	15.55%
31	사람들	60	0.21%	15.76%
32	MBC스포츠	59	0.21%	15.96%
33	오늘의	57	0.20%	16.16%
34	아름다운	54	0.19%	16.35%
35	특선	53	0.18%	16.53%
36	일요	53	0.18%	16.72%
37	가족	51	0.18%	16.89%
38	주말연속극	50	0.17%	17.07%
39	만화	49	0.17%	17.24%
40	지금	48	0.17%	17.41%
41	길	48	0.17%	17.57%
42	스튜디오	47	0.16%	17.74%
43	토요일	46	0.16%	17.90%
44	아침드라마	46	0.16%	18.06%
45	세계의	44	0.15%	18.21%
46	중계	44	0.15%	18.36%
47	나의	43	0.15%	18.51%

1-3. 내용

방송 프로그램 이름에서 쓰이는 말은 오래도록 이름표 곧 문패(늘 앞세우는 프로그램 대표 이름)로 내거는 까닭에 쓰이는 횟수가 잦게 된다. 따라서 상위 빈도로 오른 말은 대체로 문패에 나오는 말들이다. 예컨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은 세 어절로 짜였는데, 셋 다 빈도수에 잡힌다. 말하자면 TV는 방송사 또는 매개체를 대표하는 말이 되고, ‘사랑’은 사람을 포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된다. ‘싣고’는 ‘어떻게’란 구실을 하면서도 ‘달린다, 간다, 온다 …’들을 바로 떠올리게 하는 마침마디를 생략한 이음마디다.

일부 관박이 문패를 고려하더라도 프로그램 제목에 쓰인 말의 잦기는 일반적인 말쓰임과 큰 차이는 없다. (*어절 분석은 ‘깜짝새’(소강춘·김진규·박진양씨 외 개발)를 활용하였다)

가.

조사 결과 방송사 로마자 약자(KBS, MBS, SBS, EBS)와 이 글자들이 들어가 짜인 KBS 뉴스, MBC 뉴스 SBS 뉴스 … 따위, TV가 들어가 된 말들(TV 동화, TV 쇼 따위), 일일연속극·주말연속극·미니시리즈·다큐멘터리·스페셜 등이 주로 프로그램 문패로 쓰이면서 낱말 빈도에서 상위(20회 이상)를 차지했다.(표 참조)

이는 편의상 방송사 또는 매체 프로그램을 특화하고자 쓰게 된 것이어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여서 분석 대상에 넣었다. 이는 하루에도 거듭 나간다는 점, 로마자 약자 쓰기를 익숙하게 하고 일반화한다는 점, 프로그램의 갈래를 새롭게 만든다는 점(TV소설, TV동화 따위) 등에서 짚지 않을 수 없었다.

상습적인 외래어 사용도 문젯거리였다. 뉴스·드라마·스포츠·콘서트·퀴즈·스튜디오·코미디·시트콤·네트워크·베스트·스페셜 …들이 여기에 드는데, 뉴스는 소식·새소식, 드라마는 극·방송극·이야기, 스포츠는 체육·운동·놀이, 콘서트는 연주회·발표회, 퀴즈는 알아맞히기·수수께끼, 코미디·개그는 우스개·만담, 시트콤은 풍자극, 네트워크는 방송망, 베스트는 으뜸·인기 … 정도로 바꿔 쓰거나 달리 뒤쳐 쓰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데, 방송사마다 굳이 관박이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문패나 프로그램 이름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집·도전·특선·출동·극장·명화·일요·월화·수목 …들도 문패 이름에서 특히 자주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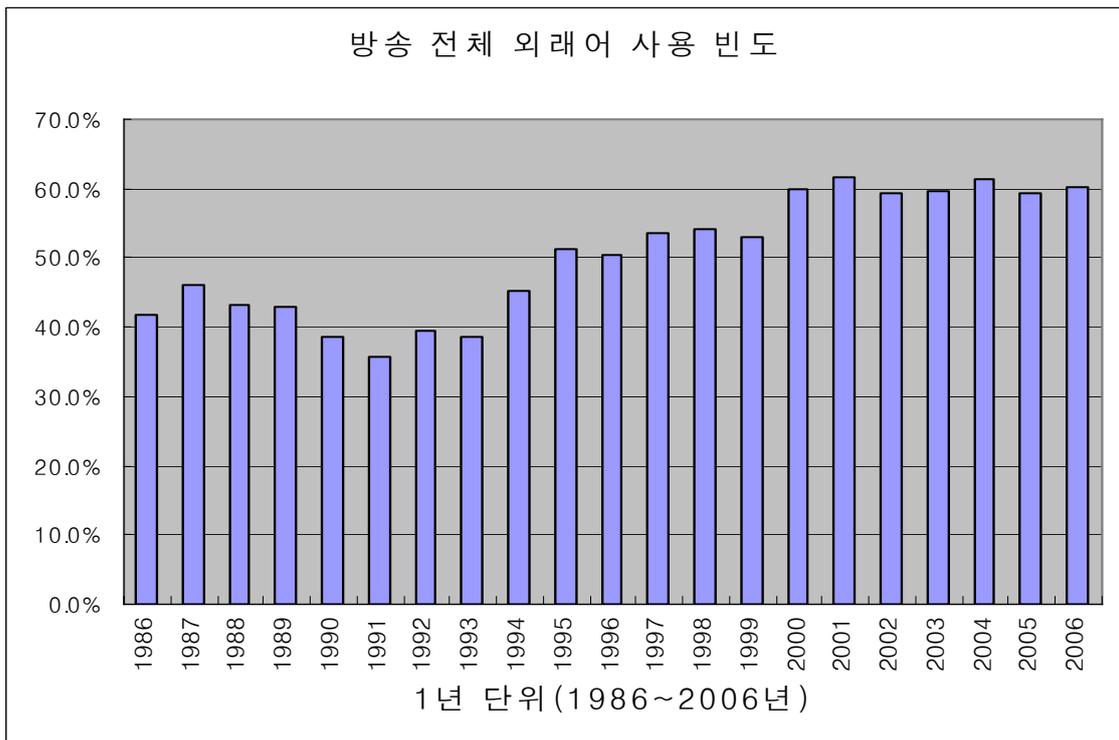
이들을 포함한 빈도수를 살펴보자.

네 차례 이상 나온 외래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뉴스, 드라마, 스포츠, 미니시리즈, 다큐멘터리, 드라마시터, 스페셜, 쇼, 콘서트, 퀴즈, 월드컵, 앙코르, 스튜디오, 코미디, 시트콤, 드라마게임, 스타, 다큐, 네트워크, 코

리아, 와이드, 베스트, 리포트, 데이트, 시네마, 비디오, 프로야구, 파노라마, 하이라이트, 올림픽, 모닝, 피디, 칼럼, 디즈니, 클래식, 뉴스라인, 뉴스데스크, 게임, 시리즈, 잉글리시, 뉴스센터, 저녁뉴스, 캠페인, 네임, 포커스, 현장르포, 대하드라마, 프로농구, 쇼, 러브, 월화드라마, 올스타, 골든벨, 서바이벌, 미스터리, 토크쇼, 아카데미, 투데이, 선데이, 크리스마스, 르포, 에티켓, 논스톱, 나이트, 스토리, 플러스, 맨, 피플, 오디세이, 해피, 매거진, 미디어, 사이버, 미스코리아, 뉴스비전, 헤드라인, 뮤지컬, 컴퓨터, 헬로, 과일, 빅스타, 뮤직뱅크, 뉴스타임, 무비월드, 카네이션, 메디컬, 가이드, 투데이, 클럽, 엑스포, 빅쇼, 카메라, 릴레이, 나이트, 프로포즈, 미니, 투나잇, 스펀지, 스머프, 코스비, 퍼즐, 채널, 시네, 라이브러리, 사이언스, 텔레토비, 슈퍼보드, 잉꼬, 에디슨, 비전, 하이웨이, 굿모닝, 뷰티풀, 챔피언, 닥터, 디지털, 논픽션, 하우스, 비엔날레, 리얼, 터치, 러브레터, 테마, 시드니, 웰빙, 내셔널, 버라이어티, 토크, 캠퍼스, 볼링, 앤, 신데렐라, 큐, 드림, 로봇, 홀, 섹션, 코스트, 인터뷰, 라이킹, 컵, 리얼, 프로그램

이 외래어들 역시 주로 문패에서 쓰였는데, KBS, MBC, SBS, EBS 등과 함께 쓰일 때가 많았다. TV·특집·VJ·PD·특선·기획·결작 ...들과도 흔히 어울린다.



한편, KBS·MBC·SBS·EBS·TV, 뉴스·드라마·스포츠·다큐멘터리·쇼 등 10종이 전체 외래어 빈도의 10%를 차지했다.

나.

우리말 또는 한자말로써 빈도수가 잦은 말을 들추면,

사랑의(105)·사랑(75)·사랑을(32)·사랑과(19)·사랑이(13)·사랑은(12) ...처럼 ‘사랑’이 들어간 말이 제일 많았으며, 아침(91), 세계(111), 세상(80), 도전(69), 우리(67)·우리들의(23)·우리는(19), 이야기(63), 어린이(63)·아이들(13), 사람들(60), 오늘의(57)·오늘은(15), 아름다운(54), 가족(51), 만화(49), 지금(48), 길(48), 세계의(44), 중계(44), 나의(43), 좋은(42), 내(42), 출발(41·문패성) 토요일(46), 일요일(41), 그(40), 노래(40), 함께(37), 설날(35), 날(35), 여자(34), 즐거운(32), 가는(32), 금요일(31), 가다(31), 주말(31), 청춘(31), 여행(30), 추적(30), 현장(30), 인생(29), 보인다(28) ...들이 특히 눈에 띈다.

다.

전체 2만8766가지 어절에서 700개가 전체 어절 빈도수(쓰임수)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주로 문패성 낱말들로서 전체 어절 종류 9416가지의 7.43%에 해당한다. 같은 낱말도 조사나 어미가 붙은 말들을 합치면 잦기가 더 높아진다.

조사대상으로 수집된 제목들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절대적인 수치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경향을 짚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9> 전체 어절빈도순 배열표 참고]

이 700가지 낱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괄호는 빈도수)

KBS(436) 뉴스(433) MBC(409) 특집(315) SBS(302) 드라마(268) 스포츠(188) 생방송(170) 미니시리즈(158) 다큐멘터리(136) 드라마시티(113) 세계(111), 사랑의(105), 스페셜(104), 아침(91), 쇼(86), 세상(80), 사랑(75) 콘서트(74) EBS(71), 도전(69), 특별기획(69) 퀴즈(68), 우리(67), 이야기(63), 2TV(63) 월드컵(63) 어린이(63) 양코르(62) 사람들(60) MBC스포츠(59), 오늘의(57) 아름다운(54) 특선(53) 일요일(53) 가족(51) 주말연속극(50) 만화(49) 지금(48) 길(48) 스튜디오(47) 토요일(46) 아침드라마(46) 세계의(44) 중계(44) 나의(43) 코미디(43) 연속극(43) 좋은(42) 내(42) 출발(41) 일요일(41) 그(40) 시트콤(40) 노래(40) 드라마게임(37) 함께(37) 한국(37) 지구촌(36) 스타(36) 사람(35) 설날(35) 명화(35) 날(35) 극장(34) 여자(34) 월화(32) 사랑을(32) 즐거운(32) 다큐(32) 가는(32) 금요일(31) 가다(31) 주말(31) 청춘(31) 영화(30) 2000(30) 여행(30) 재미있는(30) 인간극장(30) 추적(30) 현장(30) 인생(29) 기획(29) 8(29) 네트워크(29) 코리아(29) 보인다(28) 일일연속극(28) 生放送(28) 전국(28) 행복한(28) 친구들(28) 비밀(27) 천국(27) 선택(27) 싶다(27) 두(27) 하나(27) 世界, 이것이, 2002, 21세기, 청소년, 한국의(이상 26)

[여기까지 누적 빈도 25.0474%]

회화, 토요(이상 26), 생활, 동물의, 즐거워, 찾아서, 주말의, 남자(이상 25), 왕국, 작은, 土曜名畫, 이, 서울, 와이드, 베스트극장(이상 24), 여기는, 우리들의, KBS뉴스, 창사, 무엇이든, 만화동산, 일일, 음악회, 고운말, 물어보세요, 달려라(이상 23), 사는, 직업의, 5, TV는, 시청자, 추석, 名畫劇場, 내친구(이상 22), 열린, 수목드라마, 보는, 리포트, 모험, 특급, 데이트, 어떻게, 故郷, 언제나, TV소설, 집, 나라, 선생님(이상 21), 유쾌한, 시네마, 비디오, 수첩, 대추나무, 영어, 2001, 인기가요, 전쟁, 특

별, 광장(이상 20), 프로야구, 체험, 골프, 알고, 파노라마, 특선영화, 출동, 連續劇, 하이라이트, 우리는, 사랑과, 올림픽, 땅, 있다, 수목, 스포츠뉴스, 학교, 유치원(이상 19), TV유치원, 장학퀴즈, 아침마당, 우리말, 그리고, 나무, 모닝와이드, 세계는, 기행, PD, 日曜特選, 명화극장, 과학, 수, 신나는(이상 18), 탐험, 칼럼, 마감뉴스, 있는, 오늘, 디즈니, 시사, 세계를, 뽀뽀뽀, 노래자랑, 대하드라마, 지금은, 좋다, 선발대회, 공연, 클래식, 덩동댕, 중계석, 다시, 3(이상 17), 대한민국, 삼시다, 특집드라마, 뉴스라인, 찾아라, 걸렸네, 속의, 그것이, 별난, 99, 가정의, 말한다, 밤, 뉴스데스크, 열려라(이상 16), 수요일기획, 파워, 1, 창사특집, 건강, 창, 어머니, 오픈, 밤에, 대학, 세계로, 게임, 오늘은, 한마당, 시리즈, 사나이, 2, 한(이상 15), 축제, 달린다, 한국인, 접속, 日日連續劇, 세상은, 아시아, 25時, 잉글리시, 만들기, 24시, 광복, 삶의, 토요일은, 뉴스센터, 푸른, 만남, 기쁜, 고향, 특강, 대탐험, 생활경제(이상 14), 새천년, 특종, 내한, 아이들, 신비의, 중국, 98, 전망대, 저녁뉴스, 개구쟁이, 자연, 인생이다, 지구, 뉴스와, D, 특선만화, 위하여, 내고향, 田園日記, 따라, 사랑이, 위한, 환경스페셜, 6시, 친구, 한밤의, 맛, 아빠, 마지막, 캠페인, 넓다, 없는, 기념, 특별한, 刑事, 토요일화, 달, 하나뿐인, 날씨, 만남, 現場(이상 13), 이별, 새, 바른말, 6, 대회, 잠깐, 왜, 아주, 육아일기, 역사, 클릭, 사랑은, 20, 60분, NAME, 예술의, 20세기, 내가, 포커스, 건강체조, 신세대, 가요, 통일의, 정보, 영어회화, 사랑방, 경제, 家族, 바둑교실, TV동화, 현장르포, 우정의, 날아라, 옛날, 순간포착, 大河드라마, 가요무대, 날씨와, 창작, TV연예(이상 12), 시간, 특집극, 조건, 엄마의, 영상기록, 農漁村, 대화, 행복찾기, 만들어, 화제작, 시티, 가고, 지구탐험대, 보고, 진실게임, 소설, 이름으로, 탐험대, 중계방송, 얼굴, 저널, 재방송, 프로농구, 우리가, 꽃피는, 온, 내일, 달리는, TV쇼, 겨울, 아이, 만남시다, 인간시대, 이벤트, 연예가, 세상을, 움직이는, 인간, 꾸러기, 美, 探險, 特選, 설날특집극, 뮤직, 神秘의, 러브, 특집방송, 일요스페셜, 日曜, 베스트셀러극장, 무대, 中繼, 요리, 뉴스광장, 당신의, 動物의, 바둑, 9, 월화드라마(이상 11) 때, 고향은, 서울의, 이홍렬, 볼까요, 이런, 그곳에, 散策, 잘, 밋, 울스타, 동물, 골든벨, 세계여행, 18, 韓國映畫, 결혼, 젊음, 스승의, 생명이다, 교육, 대결, 신고합니다, 네, 슈퍼, 비디오여행, 풍물기행, 꿈, 새로운, 기념식, 초청, 전야제, 속으로, 서바이벌, 韓國의, 미스터리, 통일, 심야토론, 물은, 사람과, 축구, 베스트, 다큐멘터리의, TV손자병법, 예술극장, 세상에, 한지붕, 진품명품, 토크쇼, 징검다리, 컴퓨터, 일요아침드라마, 봄, 오페라, 좋아, 희망을(이상 10), 문화센터, 50주년, 살아있다, 深夜討論, 제3지대, 만나요, 週末連續劇, 2580, 주부가요스타, 토론, 자연과, 개그, 수도권, 우주의, 아카데미, 남북의, 취재파일, 신년특집극, 바둑제왕전, 이렇게, 병원, 투데이, 아버지, 약속, 선데이, 대행진, 퀴즈탐험, 일요특선, 눈물, 해, 좋은날, 정은아의, 2004, 24時, 젊은, KBS特輯, 나, 文化街, 그대, 週末, 세가족, 主婦大學, 받습니다, 꿈동산, 대통령배, 첫사랑, 통일전망대, 어린이날, 세, 크리스마스, 기수, 비바, 신, 법, 야, 사랑해, 아침의, 음악실, 1000곡, 설날특집, 당신, 깜짝, 일요일은, 傳說的, 모여라, 배달의, 연인, 시대, 2006(이상 9), 르포, 세계가, 에티켓, 모두, 찾습니다, 삼총사, 열린음악회, 특별기획드라마, 사회, 90, 손자병법, 논스톱, 돈, 뉴스네트워크, 수요, 하니, 나이트, 특명, 365일, 일일시트콤, 119, 밀레니엄, 娛樂館, 주부, 名曲의, 혼자서도, 歌謠舞臺, 스토리, 정다운, 아침뉴스, 리퀘스트, 특집다큐, 日日, 4321, 선물, 86, 만세, 잘해요, 여러분, 플러스, 韓國映畫傑作選, 행복, 살림, 쏠

國은, 부처님, 500년, 팡, 꽃, 세상의, 고향이, 아는, 이제는, 교양한문, 맨, 싶은, 오디세이, 25, 피플, 일, 게임쇼, 명사, 미래, 희망, 동화, 몰라요, 全國, 강, 集中企劃, 실버, HDTV문학관, 꿈을, 외화, 행운의, 2003, 해피, 94, 운동본부, 조선왕조, 국악, 특별생방송, 地球村, 世界의(이상 8), 나는, 생명의, 11時에, 배웁시다, 이소라의, 산다, 문학기행, 앓는, 귀여운, 만화로, 기아체험, 여의도, 우리가락, 건강하게, 자연다큐멘터리, 야호, 시사매거진, 자연은, 사건, 미디어, 일본어, 세상속으로, 천사들의, 시상식, 스포츠크션, 유혹, 사이버, 없다, 좋은나라, 것이, 성공시대, 미스터, 종합, 결정, 함께하는, 도시의, 일이, 동요세상, 좋아요, 한선교, 책을, 미스코리아, TV로, 할, 미, 아빠의, 주부가요열창, 전설의, 당첨, 신년특집, 女性, 웃으며, 심야특선, 가족극장, 뉴스비전, 헤드라인, 일일드라마, 삶의 현장, 왕자, 연다, 추석특집극, 옛적에, 주간, 돌아온, 뮤지컬, 컴퓨터는, 88, 93, 헬로, 오락관, X파일, 映像小說, 8시, 뉴스탐험, 電話를, 선수권대회, 여성, 빅스타, s, 신비, 그림시다, 뮤직뱅크, 있어요, 문화(이상 7) [여기까지 누적비율 50.00%]

1-3-1. 조어

조어의 유형은 단일어, 복합어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외래어, 줄인말 형식들을 보인다.

이 분석에서는 제목을 단위로 살폈기에 낱말 단위까지는 세밀히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번개+돌이(고유어+고유어), 숯+돌이(영어+고유어), TV+소설, TV+장터, 실속+TV, J+리그(로마자+무엇), 그린+맨, 퀴즈+테크, 드라마+시티, 모닝+스페셜, 비디오+저널, 뉴스+라인, 데이트+라인, 테마+토크, 웰빙+라이프, 시트+콤, 포토+다큐, 키즈+퀸(영어+영어), 요리+킹, 조리+킹, 일요+뉴스, 경제+투데이, 음악+다큐, 영상+에세이, 요리+쇼, 편지+쇼, 금요+와이드, 다큐멘터리+극장, 제로+작전, 스피드+왕, 스포츠+광장(영어+한자어 짜임새 또는 그 반대), 애니+멘터리, 알바, 다큐, 시트+콤(영어 줄인말 또는 복합어 줄인말)에다 셋 이상을 합친 말들도 보인다.(테마+자연+다큐, 가요톱10 등)

국립국어원에서 1995년과 2002년부터 해마다 조사한 새말(신어)에서 외래어 비율이 2002년 64.5%, 2003년 56.1%, 2004년 55.1% 2005년 56.4%비율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 쓰인 외래어 비율이 2000~2006년에 평균 60%를 차지한 것을 보면 유행을 타는 새말 쪽보다 방송 제목에서 외래어로 된 조어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갈래별 실태 분석

2-1. 보도

보도 프로그램 꼭지 비율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방송 1·2, 문화방송(교육방송·에스비에스 창립 이전)을 합쳐 전체 꼭지 수의 18%, 17%, 15%, 15%, 16%를 보이다가 91년부터 독립하고 창립한 교육방송과 에스비에스를 합쳐 13%, 12%, 10%, 13%, 12%, 13%, 13%, 11%, 10%, 8%, 8%, 8%, 7%, 7%, 7%(2005년)를 보였다. 이는 교육방송이 교양·학습 위주로 내용을 짠 것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꼭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차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다소 높아져 10%를 보였다.

보도 꼭지 제목에는 대체로 방송사 로마자 약자와 아라비아숫자를 아울러 쓰는데, 이는 어느 방송이나 같다. 조어는 ‘로마자 약자+ 뉴스+ 무엇’이 대부분이다. 간혹 ‘무엇+ 뉴스’도 보이는데, 여기서 무었은 주로 외래어이거나 아라비아숫자로 되어 있다.

보도, 교양·오락, 방송극, 어린이 꼭지 가운데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가 가장 많이 쓰인 분야가 보도 프로그램 꼭지였다. 외래어를 쓴 비율 역시 이쪽이 가장 많았다. ‘뉴스’를 제외했을 때 그 비율은 상당수 줄어드나, 그에 따른 말들이 외래어(뉴스 데스크 따위)여서 전체 비율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아라비아숫자는 전체 평균 19%를 차지했다. 이는 보도 꼭지 이름과 시간이 함께 따라다니는 데서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보도 꼭지 전체를 5년 단위로 짚어봤다.

먼저 표기에서 방송사 로마자 약자와 TV 등을 포함한 로마자 쓰기는 80년대 이전부터 굳어져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 90년대 후반 들어 다소 잦아드는 비율을 보였다. 55%(86~90년), 54%(91~95년), 52%(96~2000년), 50%(01~05년)로 전체 평균 52.75%를 유지했다. 이는 교양·오락의 14%대, 방송극의 12%대, 어린이물의 5%대에 견줄 때 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두드러진 것이 외래어가 쓰인 비율이다.

5년 단위로 낸 비율이 전체 보도 꼭지의 70%(86~90년), 75%(91~95년), 74%(96~2000), 81%(01~05년)로 나왔다. 40~50%대의 다른 갈래 프로그램 이름에 쓰인 외래어 비율보다 24%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보도 꼭지 이름에서 표기·외래어, 아라비아숫자를 두는 방식(8시 뉴스/ 뉴스 8 따위)을 빼고는 맞춤법·표현·차별성 등에서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용어와 짜임이 단순한 까닭이다.

보도방송 꼭지 이름의 유형을 두드러진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SBS 뉴스, SBS 8뉴스, SBS 뉴스 쇼, SBS 기상 정보, SBS 스포츠 뉴스, SBS 마감 뉴스, 잠깐 뉴스, SBS 뉴스 쇼, SBS 헤드라인 뉴스, SBS 뉴스라인, SBS 뉴스 퍼레이드, 생방송 뉴스 따라잡기, 시사 포커스, 생방송 출발! 모닝 와이드스포츠 와이드, 뉴스추적/ MBC 뉴스, MBC 생활뉴스, MBC 저녁뉴스, MBC 리포트, MBC 뉴스데스크, MBC 0시뉴스, MBC 스포츠뉴스, MBC 뉴스속보, MBC 월드뉴스, MBC 아침뉴스, MBC 아침스포츠, MBC 뉴스센터, MBC 마감뉴스, MBC 출동 24시, 오늘의 세계, PD 수첩, MBC 뉴스와이드, 시사 매거진 2580, MBC 뉴스 투데이, MBC 뉴스 이브닝, MBC 뉴스라인, 스포츠 하이라이트, MBC 뉴스 '굿모닝코리아', MBC 뉴스레이더, MBC 뉴스센터 500, MBC 뉴스 아주 특별한 아침, 지구촌 리포트, 카메라 리포트, MBC 월드컵뉴스, MBC 뉴스 24, 뉴스플러스 암니옵니, 로그인 싱싱뉴스 / KBS 뉴스센터 600, KBS뉴스, 스포츠廣場, 首都圈 뉴스, KBS 뉴스센터 9, KBS 뉴스센터 24時, 뉴스 파노라마, KBS報道本部 24時, 日曜 뉴스센터, 스포츠 파노라마, KBS 9時 뉴스, 뉴스비전 東西南北, 르포 20/20, KBS 뉴스센터 700, KBS 저녁 뉴스, 뉴스 焦點, 南北의 窓, KBS 세계뉴스, KBS 아침뉴스, KBS 뉴스와 現場, KBS 뉴스 9 現場, KBS 뉴스 24時, KBS 뉴스네트워크, 世界 톱뉴스, KBS 뉴스 9 日曜와이드, KBS 뉴스 9, KBS 마감뉴스, 뉴스특보, 보도특집, 스포츠 하이라이트, 세계의 이모저모, KBS 뉴스 25, KBS 뉴스 5, KBS 리포트, KBS 뉴스라인, 취재파일 4321, 미디어 포커스, 시사포커스, KBS 뉴스속보 ...

2-2. 교양·오락

교양·오락 분야는 갈래가 다양하고 폭이 넓다. 5년 단위로 따져 교양·오락 분야 쪽지 비율이 40.6%(86~90년), 54.6%(91~95년), 55.4%(96~2000년), 55.8%(01~05년)였다. 90년대 이전의 40%대에서 90년대 이후 50%대를 넘어서고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제목은 두 어절로 된 명사구 형태가 가장 많아서 평균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하나의 낱말로 된 제목이 2%, 문장 형식으로 된 제목이 21%를 차지했다. 교양·오락 쪽 제목 형식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기에서 로마자 비율은 10%(86~90년), 10%(91~95년), 15%(96~2000년), 17%(01~05)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보도 분야(40%)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아라비아숫자는 전체 평균 13% 비율을 보이는데, 갈래별로 보도 분야 다음으로 자주 나온다.

한자 표기는 95년까지 전체의 30~17%를 보이다 이후 0~1%를 보였다.

외래어 사용 실태는 36%(86~90년), 35%(91~95년), 51%(96~2000), 61%(01~05)로 95년 이후 이 분야에서 10%포인트씩 가파르게 비율이 올라간다. 이는 텔레비전 방송이 외국 사람·문물·자연을 소개하기에 적절한 매체인데다 시기적으

로 이른바 개방과 세계화 추세를 타거나, 이를 스스로 앞장서 부추긴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 증가 추세의 열쇳말(핵심어)은 세계·지구촌·탐험·글로벌 ...들이다.

맞춤법에 어긋난 비율이 1%(86~95년), 2%(96~2000년), 2%(01~05년)로 늘어나는 것은 대체로 영어 차용어를 많이 쓰면서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것들이 많은 까닭이다. 표현(4%, 4%, 7%, 10%), 차별성(8%, 11%, 17%, 21%), 적절성(평균 3%)에서 비율이 높아진다. 표현 역시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용어들이 주로 잡혔다. (열전·도전·긴급·본부·출동·전략·이벤트·특명·대결·특공대·초특급·슈퍼맨·울트라·대전·대작전 ...)

차별성이라면 일반적으로 성별·인종·노소·장애 등에서 따지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유독 특집·특급·특선·특별·특종·특강·특종·기획·스페셜·베스트·앙코르·슈퍼·스타 ...들을 붙여 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나아가 이를 무슨 색다른 갈래(장르)처럼 쓰는 정도인데, 이는 별것도 아닌 것을 버릇으로 '이름 장사'를 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 본래적인 차별 용어와 함께 방송사 특유의 그런 이름들이 상당수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남발하면 자칫 시청자들의 눈을 식상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다.

교양·오락 쪽 쪽지 이름 가운데 두드러진 유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호돌이 出動, 스튜디오 830, 名曲의 故郷, 퀴즈 探險 神秘의 世界, 이것이 바로 그것!, 다함께 노래를, 스포츠 알고 봅시다, 당첨!! 올림픽 복권, 쇼 86, 日曜 버라이어티, 스승을 찾습니다, 다큐멘터리 한국 전기 100년, 시네포엠 사랑과 시와 성화, 세계는 하나, 서울에서 만남시다, 特選 다큐멘터리 달라이 라마,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TV는 사랑을 신고, 빅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노래, 바른말 고운말, 환경스페셜 생명의 땅 그린벨트, 웰컴 투 코리아, 아이 러브 코리아, KBS특강 e-비즈니스에 도전하라, 체험! 삶의현장, 역사 스페셜 특명 조선 최대 원정함대 대마도를 점령하라, 클래식 오디세이, 로컬 프리즌 세상은 넓다, 퀴즈! 대한민국, 피플! 세상속으로, 비바! K-리그도전, 골든벨, KBS 특별기획, 슈퍼 마리오, 스타와 만나요, 도전! 모험의 세계,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 슈퍼 보이, 새내기 출동 Q!, 대결! 20/40, 출동! 우리는 친구, 특별기획 21세기에의 도전, 스타! 서울 스타, 거북이 특공대, 환경탐사 그린팬을 찾아라, 울트라 탐험대, 자동차 대전, 설날특집 트롯 3대 천왕, 추적! 사건과 사람들, 폭소 하이스쿨, 스타TV강좌 화이팅! 하이틴!, 도전! 퀴즈 퀸, 스타 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 야인시대 스페셜, 울스타 대격돌, 슈퍼 스타 서바이벌 ...

2-3. 방송극

텔레비전에서 방송극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안방 시청자를 찾아가는 볼거리다. 드라마로 더 많이 일컫는데, 안방극, 연속극, 대하드라마, 아침드라마, 특집드라마, 단막극, 홈드라마, 티브이소설 ...등 여러 이름이 있다. 여기서는 영화 제목들도 상

당수 포함된다.

한국방송1, 2와 문화방송만 있었던 86년부터 90년까지 전체에서 방송극이 차지하는 꼭지 수 비율은 평균 32%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91년부터 잡힌 에스비에스와 교육방송 쪽을 더하면 19%(91~95년), 19%(96~2000년), 18.4%(01~05)였으며, 06년에는 전체의 20%였다.

방송극 제목은 한 낱말로 된 이름이 전체 평균 17%, 명사구 형식으로 된 말이 65%, 문장 형식으로 된 말이 16%였다. 이는 다른 갈래보다 한 낱말로 된 제목이 10% 이상 높은 비율이고, 문장 형식으로 된 이름은 교양·오락의 21%, 어린이의 19%보다 적은 비율이나 보도 갈래(8%)보다 갑절이나 많았다.

방송극에서 로마자 비율은 어린이 꼭지 다음으로 적은 12%를 보였다. 이 역시 방송사 문패 영향으로 잡힌 게 많고, 방송극 실제 이름에 들어 있는 로마자는 이보다 낮은 비율이다.

외래어 비율은 36%(86~90년), 35%(91~95년), 51%(96~2000), 61%(01~05)로 뚜렷이 늘어나는 추세다.

2-3-1. 방송극 어절

방송극 제목이 일반적인 언어사용 양식과 관련이 깊다고 보아 방송극 어절을 살펴봤다.

표기에서 큰 특징이 없으나 한자가 몇 군데 보이고, 특히 명사가 많으나 외래어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토씨로는 관형격조사 ‘의’의 쓰임이 잦았다. 문장형식 제목이 있어서 동사·형용사와 그 활용어가 적지 않았다.

방송극이 삶을 주제로 다루는 까닭이어선지, 사랑·여자·남자가 빈도수에서 첫번째를 달렸다. 이와 관련된 어절을 포함해도 그렇다. 여기서 자주 쓰인 남·여를 성차별과 관련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간혹 방송극 문패에서 나온 이름들도 보인다.

세 차례 이상 쓰인 어절들을 차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31), 여자(29), 사랑의(21), 노래(16), 내(15), 남자(15), 그(14), 아름다운(13), 아침(12), 이별(12), 집(12), 때(11), 우리(11), 사람들(11), 당신(10), 사랑과(10), 강(10), 첫사랑(9), 사랑은(9), 길·내일·연인·엄마의·꽃피는·딸·날(이상 8), 나무·나의·선택·다시·칼라·눈물·약속·시작·그녀·이·신부·간다·사랑이·나라·사랑할·좋은(이상 7), 신·없는·좋아·우리들의·않는다·이야기·만들기·조건·어떡해·그대·겨울·겨울·속으로·사는(이상 6), 천사·인생·만남·아내·천국의·사람·아버지·찾아서·도시의·언덕·법·떠느리·생긴·푸른·나는·까치네·아내의·학교·선생님·세월·고백·떠나면·행복한·일·세상·때까지·야망의·두·결혼·마지막·위하여·작은·女子·가족·봄(이상 5), 아빠·이모·그리고·어린이·사랑해·겨울새·정·장미의·인생·갑자기·목소리를·풍경·천사의·서동요·옥이·사랑하니까·도시·불꽃·낮·취요·여행·것은·공룡·남과·선생·손님·엄마는·반란·너의·어머니·여자의·해돋는·블루·나쁜·

내사랑·못·꽃·문·어느날·땅·뜰·또·달·선·사나이·남자가·전쟁·형사·루키·지금은·유혹·시대·여·세·오(이상 4), 울밑에·인간시장·3·사랑하는·하늘·소리·연애·아스팔트·부르는·열아·흡·여자는·폭풍·박·물·산다는·달콤한·금잔디·함께·바람의·있다·내가·사랑한다·완전한·그·리워질·속의·미스터·당신이·그녀의·우리가·태양·미녀·초원의·태조·용서·뜨거운·꽃보다·꿈·덧·찬란한·계곡·질주·옥망·깃발·토지·있는·야인시대·당신의·계단·봉선화·왔습니다·고·향·맨발의·하늘이시여·말려·민들레·제국의·택의·결·흐른다·청춘의·도시·섬·야망·프로포즈·빛·옛날의·도깨비가·싫다·새·손·대추나무·서울·슬픔·노다지·긴·여인천하·온·그대의·도둑의·내일은·아들·뜨고·모래위의·수·그대는·그녀가·장길산·전설·바람·18세·왕건·새엄마·장희빈·누가·따뜻한·손자병법·끝없는·잃어버린·고독의·비·새끼·늑대·엄마·메디컬(이상 3)

2-4. 어린이

어린이 갈래는 꼭지 수 비율이 11.4%(86~90년), 8%(91~96년), 9.8%(97~2000년), 14.4%(01~05년)로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 꼭지 이름 조성은 86년 이후 2005년까지 전체 평균 낱말 6%, 명사구 76%, 문장 18%를 보였다. 의미 있는 추이로, 낱말로 된 이름이 9%(86~90년), 8%(91~95년), 4%(96~2000년), 4%(01~05년)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외래어 비율은 41%(86~90년), 39%(91~95년), 47%(96~2000년), 57%(01~05년)를 보였다. 전체 평균은 50%를 보이는데, 90년대 중반부터 한층 늘어나는 추세다.

어린이 꼭지의 대표적인 이름들을 내보인다.

아기공룡 텐버, 용감한 켈리, 다 함께 퀴즈를, 사레센, 슈퍼마리오, 스타와 만나요, 개구쟁이 우프, 광속인간 샘, 슈퍼보이, 먼스터 가족, 슈퍼그랑조, 슈퍼맨, 유령 캠프, 오즈 탐험대, 출동! 마스크, 쌍둥이 줄루 줄리, 울트라 탐험대, 꼬꼬리코 돌격대, 달려라 코바, 마법소녀 리나, 타이의 대모험 마스크, 마법기사 레이어드, 천방지축 덩크슛, 베이사이드 알개들, 신비의 나라 엘 하자드, 미래영웅 아이언리거, 우리는 챔피언, 우주의 기사 테카맨, 에스카폴로네, 스피드왕 번개, 카드캡터 체리, 포켓 몬스터, 메가 레인저, 내친구 텅구, 춤추는 빅베어, 헬로우 퀴즈 짱, 잉글리시매직 스쿨, 특선만화 스피릿, 접지전사 미스터 빈, 듀얼 마스터즈, 빛의 전사 프리큐어, 빛들이 우주 2만리, 세계로 싱싱싱, 우리끼리 또래끼리, 혼자서도 잘해요 ...

어린이 갈래에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전체 평균 4%에 이르렀으나 대체로 외래어 표기 잘못이었다.(이건 내꺼야, 덩더쿵, 헬로우, 먼스터, 벤자민, 알렉산더 그레함 벨, 달려라 스피로우, 맥켄지성의 유령, 스노우맨, 싸커보이 토토, 산타크로스 따위)

표현·차별·적절성(슈퍼소녀 비키, 퀴즈 천하통일, 바바 과과)에 걸리는 게 적지 않았고, 말차레 바꾸기, 외래어 남용, 문패에서 무분별한 특별·특강·특집·특선 등의 사용도 성인 대상 꼭지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외래어 남용이나 무국적 용어 이름, 게임용어 이름 사용은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감각에서 예민하다는 점에서 좀더 절제해야 할 것이다. 이따금 빗돌이 우주 2만리, 세계로 싱싱싱, 우리끼리 또래끼리 ... 등 좋은 이름도 볼 수 있었다.

순수한 토박이말 또는 토박이말+한자어 조어로 된 꼭지의 비율을 내 본바, 한국방송1은 167가지 중 38가지 남짓으로 22.75%, 한국방송2는 300가지 중 62가지로 20.66%, 문화방송은 222가지 중 35가지 남짓으로 15.77%, 교육방송은 773가지 중 127가지 16.43%로 나왔다. 전체를 평균하면 20.85% 정도였다. 이 밖엿것은 주로 서양 외래어가 섞였거나 한자말끼리 합쳐서 된 제목들이다. 물론 서양 외래어와 고유어가 뒤섞여 된 짜임이 많다. 거기엔 사람이름 등 고유명사도 적잖은데, 단순히 외래어와 어울려 제목이 만들어졌다고 마냥 내칠 일도 못 쓸 것도 아니다. 서양쪽과 교통과 거래가 잦아지면서 그 쪽 용어를 가져다 쓰는 것은 자연스런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린이 방송에서까지 이런 형편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좀더 노력한다면 고유어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터이다. 그 바탕이 우리말에 있는 까닭이다.

3. 시기별 분석

모아놓고 살핀 결과 생각보다 변화가 급격하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들도 눈에 띈다.

먼저 표기에서 로마자가 5년 평균 19%(86~90), 20.2%(91~95년), 21.6%(96~2000년), 22%(01~05년)를 보였고, 06년에는 24%를 보였다.

한자 표기는 86~95년까지 최고 31%에서 16%를 보이다가 96년 이후 0~1%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삼중(한글·한자·로마자) 표기 추세로 실제 화면에서는 늘어나는 형편이다.

외래어 사용 증가가 두드러진다.

연도별로 42%(86년), 46%(87년), 43%(88년), 43%(89년), 39%(90), 36%(91년), 40%(92년), 39%(93년), 45%(94년), 51%(95년), 50%(96년), 54%(97년), 54%(98년), 53%(99), 60%(2000년), 62%(01년), 59%(02년), 60%(03년), 61%(04년), 59%(05년), 60%(06년)를 보였다. 이를 5년 평균으로 간추리면 42.6%(86~90년), 42.2%(91~95년), 54.2%(96~2000년), 60.2%(01~05년), 60%(06년) 비율이다.

90년대 초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 90년대 후반 들어 50%대, 2000년대 들어 60%대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20년 사이 5년 단위로 언어사용 실태가 이처럼 뚜

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다른 사회현상에 견줘서도 급격함을 보여준다.

갈래별 변화 추이는 따로 보였으므로 생략한다.

맞춤법에서 변화추이는 0~2% 사이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외래어가 늘어남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게 많았다.

표현에서 지나친 꼭지 이름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3%, 2%, 4%, 3%, 4%, 2%, 2%, 5%, 4%, 4%, 5%, 7%, 6%, 6%, 7%, 8%, 7%, 8%) 표현이 지나치다는 관점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진폭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확실하다. 그 유형은 표기·외래어·과장·어색함 등 여러 분야에 걸친다.

뉴스센터 9, 第6公開홀, 비바 靑春, 挑戰, 車.車.車, 쇼 特急, 녹색보고 나의 살던 고향은, 강력추천 고교챔프, KBS특강 e-비즈니스에 도전하라, 이벤트 인 코리아, 비바 K리그 비바 월드컵, 우주로의 시간여행, 해피통신, 여름 특별 양꼬르 미니시리즈, 와! © 멋진세상 ..., 생방송 토요'이레', 가족愛발견, 오버 더 레인보우, 사이언스 大戰, 퀴즈 천하통일, 도전 죽마고우 ...

차별성에서 남녀, 노소, 인종, 장애 등과 방송사 특유의 임시 편성을 뜻하는 특선·특별·스페셜을 포함하여 분석한 까닭에 그 범위가 늘어났다.(스타·베스트·결작·명작...)

연도별 추세는 86년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났다.(8%, 6%, 12%, 11%, 7%, 7%, 7%, 11%, 14%, 16%, 10%, 15%, 14%, 25%, 22%, 24%, 20%, 20%)

환상특급, 토요일특급, 특급 퀴즈 코리아, 올드미스 다이어리, 빅 쇼, 보도특보, 보도특집, 환경 스페셜, 역사 스페셜, 가요톱10, 올스타 청백전, 퍼즐 특급열차, 독점 여성, 스타 골든벨, 스타 집현전, 시사매거진 2580, 이슈&이슈, 뉴 논스톱 스페셜 ...

적절성도 잣대가 추상적이긴 하나 주로 표기법이나 어법에 어긋나는 것, 과장되고 어색한 표현, 차별하는 말 등이 싸잡혔다. 통념에 어긋나는 것 위주로 가린바, 연도별(2%, 1%, 3%, 1%, 2%, 1%, 3%, 2%, 2%, 3%, 2%, 2%, 5%, 4%, 4%, 4%, 4%, 5%, 3%, 4%, 3%)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나 부적절한 게 이 정도라면 결코 무시할 수치가 아닐 터이다.

먼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소프트웨어의 이해, FINAL 수능특강, e-learning, 아듀 무인년, 양꼬르 자연 다큐멘터리, 열정의 무대 Burn the floor ...

Ⅲ. 방송사별 실태 분석

1. 한국방송1

1-1. 개관

<한국방송1>은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1년치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프로그램 제목 수는 2117개였다.

분석 결과 두드러진 흐름은 표기에서 86년부터 95년까지 프로그램 제목에 나오는 한자말이 거의 한자 표기였으나 96년부터 전면적으로 한자 표기가 사라진 점이다. 이는 당시 편성책임자가 갈리면서 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한국방송에서 보관 중인 <TV 基本放送順序>(KBS 1, 96년까지, 97년부터 '1TV 주간방송순서'로 바뀜) 표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 제목 목록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목록을 작성한 뒤 실제 방송에서 이 방송 순서표와 같이 나갔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4분의 1 정도만 같이(한자 표기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1 참조]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 외래어(한자어 제외) 비중은 86년에서 88년 사이에 45%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경기대회(86년)와 올림픽(88년)을 비롯한 행사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추세는 잠시 잦아들었다가(33~43%) 2001년부터 전체 프로그램 제목에서 외래어 수가 절반을 넘어선다. (2001~2006년, 48~56%)

㉠ 갈래별 분석

갈래는 보도(1), 교양·오락(2), 방송극·영화(3), 어린이(4)로 나뉘어 살폈다. 그 분류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보도와 교양·오락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어린이 갈래에는 청소년과도 겹쳐 엄밀히 나누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15~21년치를 살폈으므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녔다고 본다.(한국방송1 연도별 분석, 한국방송1 갈래별 분석 표 참조)

1-2. 보도

한국방송1에서 보도 프로그램 비율은 3년치 평균 23%(1986~88년), 22%(89~91년), 22%(92~94년), 23%(95~97년), 16%(98~00년), 17%(01~03년), 19%(04~06년)로 나타났다.

보도 프로그램 제목 짜임은 방송사마다 큰 차이가 없다. 대체로 방송사의 영어 표기 머릿글자(KBS, MBC, SBS, EBS 따위)를 따고 ‘뉴스’를 붙이는 식이다. 한글로 ‘한국방송’(90년대 말까지는 회사이름 그대로 ‘한국방송공사’라 함)이란 이름은 프로그램 제목에서 전혀 쓰지 않았다.

KBS 뉴스, KBS 뉴스센터, KBS 뉴스센터 530, KBS 뉴스 광장, KBS 뉴스 네트워크, KBS 9시 뉴스, KBS 9, KBS 報道本部 24時, KBS 25, KBS 뉴스라인, KBS 뉴스 속보, KBS 지역권 뉴스, KBS 마감뉴스, KBS 스포츠뉴스, KBS 스포츠 파노라마 ...들이 전형적인 이름이다. 이 밖에 아침마당, 저녁뉴스, 정오뉴스, 마감뉴스, 세계뉴스 ...들도 보인다. 앞서가는 농어촌, 뉴스의 현장, 각종 생중계 등의 형식으로도 내보낸다. 다큐멘터리·시사교양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교양·오락 쪽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KBS’나 ‘뉴스’란 ‘관박이’를 제외한다고 해도 새소식 문패나 제목에서 따라붙는 외래어가 있어 외래어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를 쓴 비율은 둘 이상 겹친 것을 아울러 5년 평균으로 션했을 때 각각 54%, 31%, 13%(86~90년), 68%, 28%, 9%(91~95년), 54%, 1%, 18%(96~00년), 52%, 0%, 21%(01~05년)였다.

보도 프로그램의 짜임새는 21년 두루 ‘KBS+뉴스+무엇’ 형식의 짜임이 90%를 넘었다.

보도 프로그램의 외래어 비율은 21년 전체 평균 72%였다.

문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거듭 나간다는 점에서 ‘뉴스’ 아닌 판 말을 찾아쓰기 전에 이 분야에서 외래어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 교양·오락

교양·오락은 네 가지 갈래 가운데 가장 많은 가짓수를 보여 그 비율이 전체의 42~69%였다. 교양·오락 꼭지 이름의 유형은 낱말 2%, 명사구 79%, 문장 형식 22%였다.

외래어 비율은 5년 평균 31%(86~90년), 21%(91~95년), 29%(96~00년), 52%(01~05년)로 21년 평균 35%였다.

교양·오락에서 21년 전체 평균으로 어긋난 맞춤법이 1%, 어색한 표현이 5%, 차별성에 걸린 말이 9%, 적절성에 걸린 말이 4%를 보였다. 다른 갈래 꼭지보다 이 분야에서 어긋나는 수치가 더 많았다.(표 참조)

1-4. 방송극

방송극·영화 쪽은 배우들의 연기, 문학과 극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예술 영역으로 보아 그 제목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한편, 방송극의 원작이 소설일 때가 잦고, 영화 이름도 포함된 까닭에 순수한 방송극이 아닌 것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며 살필 일이다.

제목 짜임새는 낱말로 된 제목이 21년 전체로 19%, 명사구 형식이 63%, 문장 또는 입말 형식이 17%에 이른다. 이는 다른 갈래와 좀 다른 비율을 보이는데, 작품의 문학적 표현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맞춤법·표현·차별·적절성 문제에서 21년 전체 평균 1%, 1%, 12%, 5%를 보였다. 차별성에서 비율이 높은 점은 스페셜·결작·특선·특별·특집·시리즈 따위 문패 이름에서 상당수 연유한다.

외래어는 다른 데 건취 적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41%에 이른다는 점은 문패와 상관의 많으나 적은 수치는 아니다.

1-5. 어린이

한국방송1의 전체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꼭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년 평균으로 11%(86~88년), 8%(89~90년), 9%(92~94년), 11%(95~97년), 4%(98~00년), 6%(01~03년), 7%(04~06년)였다. 이는 절대 수치가 아니라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른 프로그램 꼭지가 더 많이 늘어난 까닭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수치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른 갈래에 건취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언어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년 전체 평균으로 로마자 표기 이름이 11%에 이르렀으며, 외래어는 33%에 이른다.

이는 만화·동화·놀이 등 어린이용 프로그램이 외국 것을 번역·번안한 것, 본받은 것들을 내보내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가리지 않았다. 컴퓨터 게임에서 온 말이나 환상소설·외국동화 등에서 가져온 주인공 이름과 용어들이 많았다. 이런 현상은 국내에서 만든 작품이나 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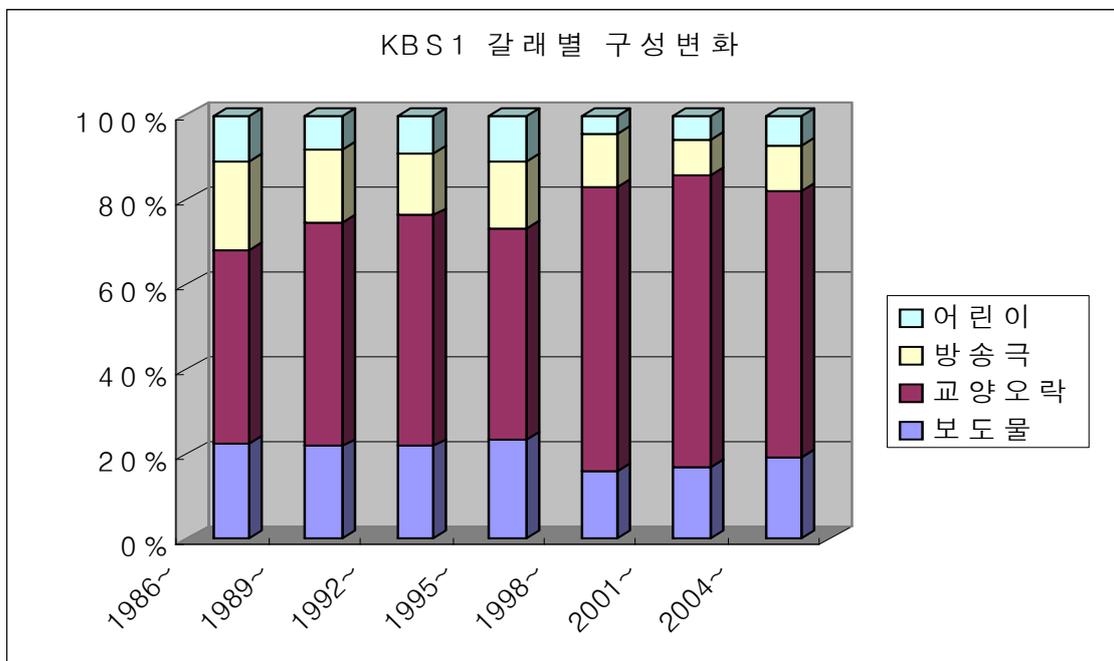
미키와 도날드, 바바 파파, 빨간머리 앤, 귀여운 핑키, 슈퍼소녀 비키, 날아라 마야, 뽀빠이와 아들, 밀림의 왕자 레오, 개구쟁이 스머프, 슈퍼소년 앤드류, 작은 숙녀 링, 날아라 슈퍼보드, 헐크호간의 선더보트, 오디세이, 2020 우주의 원더키디, 외계소년 위제트 ...

1-6. 연도별 경향

연도별로 외래어 부문을 살펴보면, 보도 갈래에서 5년치 평균 70%(86~90년), 80%(91~95년), 66%(96~00년), 69%(01~05년)를, 교양·오락 갈래에서 31%, 21%, 29%, 52%를, 방송극 쪽에서 38%, 28%, 53%, 52%를 보였다. 어린이 쪽에서는 32%, 38%, 29%, 33%를 보였다.

로마자 한자 등의 표기는 보도 갈래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5년 평균 54%, 68%, 54%, 52%), 교양·오락 쪽은 9%, 14%, 14%, 22%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방송극 역시 5%, 10%, 21%, 28%로 높아지는 추세였고, 어린이 갈래에서는 7%, 15%, 6%, 20%로 진폭이 컸다.



㉞ 실태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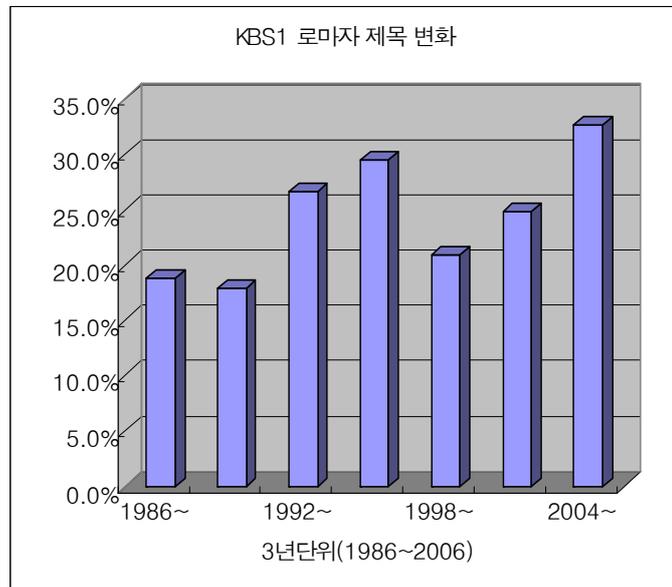
1-7. 조어 표기

로마자 표기는 3년치씩 합쳐 평균을 냈을 때 진폭이 있으나(19%, 18%, 27%, 29%, 21%, 24%, 33%) 2003년 이후 최고조를 보인다. 이는 시대 현상 가운데 영어교육 바람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자 표기는 94년까지 50% 수준을 보이다가 95년 17%, 96년 이후에는 1%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04년 이후 약간(5%) 늘어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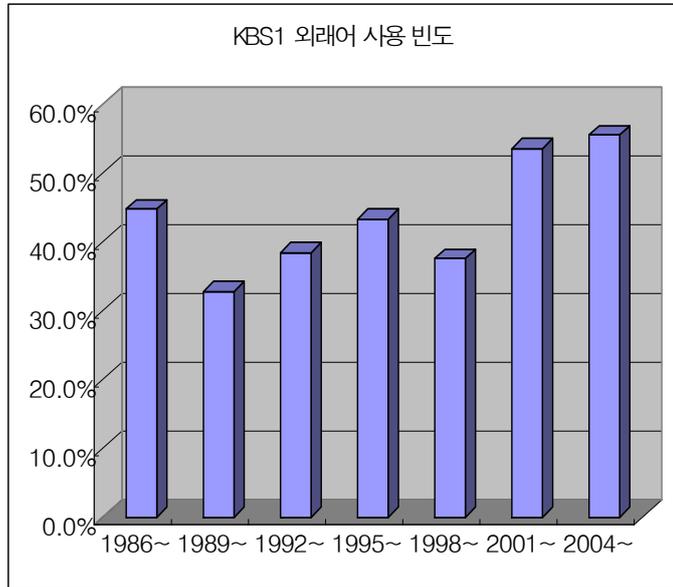
아라비아숫자는 큰 진폭 없이 10%를 오르내리다 2004년 이후 12%에 이른다.

문패에서 KBS와 TV 등이 많이 붙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으로 올수록 로마자와 영어, 한자 제목이 새롭게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방송화면에서는 하나의 제목에 한글-한자-로마자 가 겹쳐 나오는 경우도 잦아졌다.



1-8. 외래어

외래어는 전체 분야에서 3년 치씩 묶었을 때 45%(86~88년), 33%(89~91년), 39%(92~94년), 43%(95~97년), 38%(98년~00년), 54%(01~03년), 56%(04~06년)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외래어가 많이 쓰이는 분야는 보도, 교양·오락 쪽 제목과 문패, 방송극·영화 문패, 어린이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보도 쪽지는 외래어투성이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역시 외래어가 많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도 많았다.

방송극 쪽에서는 방송극 자체 이름이 아니라 방송극을 안내하고 규정하는 문패 이름에 대부분 드라마·시리즈·스페셜이 붙어 외래어 수치에 포함되었다. 일일연속극이나 주말연속극이 상당수인데도 외래어 문패가 압도적이었다.

1-9. 맞춤법

맞춤법 또는 표준어법에 어긋나는 곳도 상당수 나타났다. 예컨대 입말체 이음씨 끝(어미)으로 ‘있음에·르래’, ‘-에의·-와의’를 비롯해 불필요한 ‘-의’의 쓰임 등이 잦았고, 주로 외래어 표기에서 잘못된 데가 많았다.

기본방송표나 실제 화면에서 띄어쓰기는 거의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프로그램 글자도안이나 디자인 과정에서 띄어쓰기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손보는 과정에서 이를 챙기지 않았거나 챙기는 절차가 허술한 까닭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으로 띄어쓰기 문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어나 로마자, 아라비아숫자로 조합된 말들 역시 띄어쓰기가 무척 난잡하였다. (팬더곰, 승부한다, 다큐멘타리, 달려라 조오, 문화컬럼, 신나는 개구장이, 앵콜, 미키와 도날드, 르뽀 사람과 사람, 傑作 다큐멘타리, 우리 친구 멋장이, 슈퍼 소녀 비키, 할아버지 멋장이, 난장이 요정들, 초록빛 생명의 초대, 열린음악회 ...)

1-10. 표현

톱·걸작·스페셜·베스트·단독·도전·열전·전사·대결·특공대·파이터·탐험 등 자극적이고 과장되며 폭력적인 용어들이나 표현이 적잖았다. 이는 교양·오락·방송극·어린이 분야를 가리지 않았는데, 92~94년(1%)을 빼면 전체 평균 4~5% 안팎이나 됐다.

색다른 표현, 과장된 표현은 처음에는 먹히지만 쓸수록 신선도나 효과가 반감되는데도 화석처럼 쓰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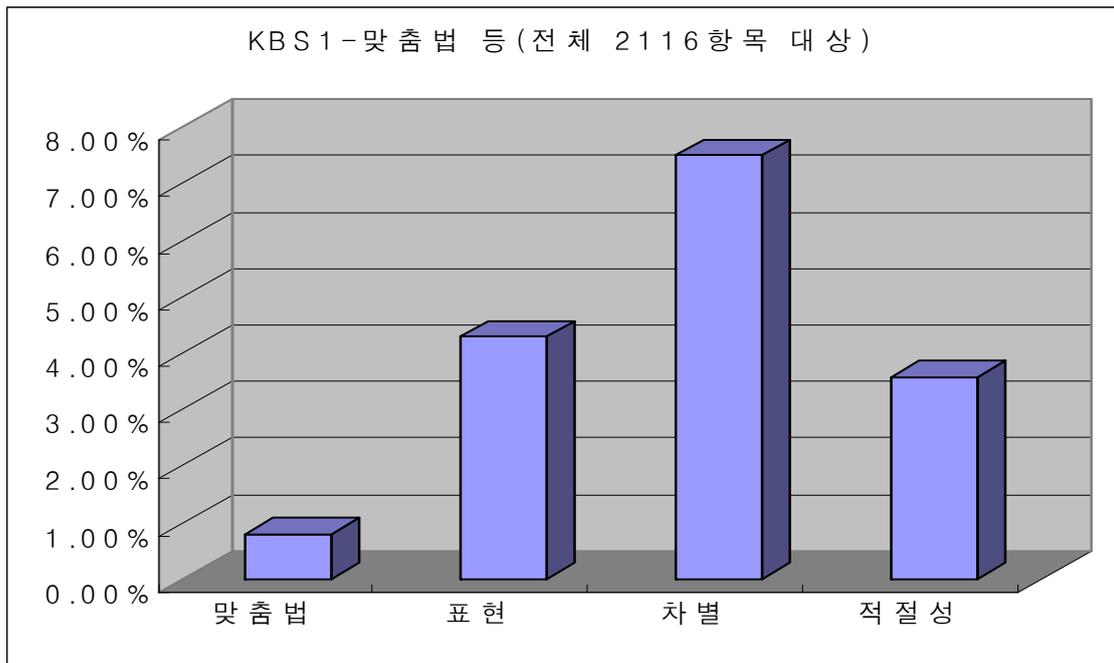
가요톱10, KBS 뉴스센터 645, 第6公開홀, KBS 報道本部 24時, 熱戰! 달리는 일요일, 招待席 슈퍼스타를 위하여, 挑戰, 車.車.車, 민원 25시, 비바! 월드컵, 도전! 골든벨, 비바! K-리그 ...

1-11. 차별성

특급·특종·특선·특집·특강·특별 ...처럼 ‘특’자 돌림 문패들과 여성·여자·남자·영웅·여왕을 비롯한 성차별적 용어, 기타 세대, 인종 차별적인 용어들이 다수 나타났다. 이 역시 평균 최소 전체의 4%에서 최고 14%에 이른다. 프로그램 이름을 튀도록 달아야 눈에 띄게 된다는 의식에다 차별성의 폐해에 무딘 상태에서 제목을 다는 까닭으로 분석된다.

1-12. 적절성

적절성은 표현이나 차별성과 겹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표현·차별성·적절성에 두루 닿아 복수로 걸린 용어들이 적잖았다. 특히 지나친 로마자 약자, 번역되지 않은 원제목 노출, 원제목을 발음만 한글로 표기한 이름, 난 데를 알 수 없는 말, 사회통념상 무척 어긋나는 표현들을 이쪽에 담았다. 따라서 조사자의 엄밀성에 따라 범위가 넓기도 좁기도 한 측면이 있다. 이 역시 전체 2%에서 6% 사이를 오가는 수치를 보였다.(쇼! 特急, 해외동포, 뉴스 9, 한국의 미, 민원 25시 따위)



1-13. 제목 짜임새

제목 짜임새를 낱말, 명사구, 문장으로 나뉘었을 때 보도 쪽지는 낱말 형식이 1%, 명사구 형식이 95%, 문장 형식이 3%였다. 교양·오락 쪽지는 각각 2%, 79%, 20%였으며, 방송극은 19%, 63%, 17%였다. 어린이 쪽지는 3%, 76%, 21%를 보였다.

방송극에서 단순한 낱말 형식 제목이 19%로 꽤 많은 편이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사물·사건을 한 낱말로 뭉뚱그리거나 상징하는 제목, 황진이·춘향전 따위 사람들이름을 제목으로 삼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양·오락, 방송극, 어린이 쪽지에서 문장·입말 형식의 제목이 17~21%를 보인 것은 제목의 역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긴 제목은 주로 이쪽에서 나왔다.

문장 형식이라 하지만 입자말 풀이말을 두루 갖춘 것이 아니라 풀이말 위주로 된 생략형이 많았는데, 이는 입말 형식을 써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한국방송2

2-1. 전체 개관

<한국방송2>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1년치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제목은 모두 2532개였다.

분석 결과 두드러진 흐름은 <한국방송1>과 같이 표기에서, 86년부터 95년까지는 프로그램 제목 한자말이 거의 한자 표기였으나 96년부터 전면적으로 한자 표기가 사라진 점이다. 이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보관 중인 <TV 基本放送順序>(KBS 2/96년까지, 97년부터 '2TV 주간방송순서'로 바뀜) 표를 바탕으로 작성했는데, 실제 방송에서는 방송순서표의 표기와 달리 4분의 1 정도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서 외래어(한자어 제외) 비중은 86년에서 88년 사이에 38%를 기록했으며, 이후 35%(89~91년), 43%(92~94년), 49%(95~97년), 56%(98~00년), 50%(01~03년), 52%(04~06년)를 보여준다. 이 추세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점인 98년 들어 외래어 점유율이 전체 꼭지의 50%를 넘어선 뒤 차츰 고착되고 늘어남을 나타낸다. 이런 흐름은 제1방송과 큰 차이가 없다.

㉠ 갈래별 분석

보도(1), 교양·오락(2), 방송극·영화(3), 어린이(4)로 나뉘어 살폈다.

2-2. 보도

보도 꼭지는 전체의 10% 안팎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10%/86~88년, 10%/89~91년, 15%/92~94년, 14%/95~00년, 10%/01~03년, 9%/04~06년) 보도와 교양·오락 쪽이 겹치는 바가 있어 갈래 나누기가 확연하지는 않으나, <한국방송1>이 보도 분야에서 20% 안팎을 유지하는 데 견줘 <한국방송2>는 10%대여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방송사의 영어 약자(KBS)를 따서 '뉴스'를 붙이는 식은 제1 방송과 다름이 없으며, 'KBS 뉴스와 KBS 2TV 뉴스, KBS 2TV 뉴스센터, KBS 2TV 스포츠 뉴스'를 아울러 쓰고, 'KBS 뉴스비전, KBS 헤드라인 뉴스, KBS 뉴스 투데이 ...'들도 보인다.

보도 분야 프로그램 제목은 90% 이상이 명사구로 짜였으며, '생방송! 전국은 지금', '생방송, 아침을 달린다'와 같은 문장 형태의 짜임이 90년대 후반부터 5% 이상

으로 늘어난다. 이런 유형은 신선감과 역동성을 주는 문패들로 볼 수 있겠다.

보도 프로그램의 로마자 표기는 21년 평균 44%로서 아라비아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제목이 잦았다.(보기 : KBS 2TV 뉴스, KBS 8 뉴스타임, KBS 뉴스 7, KBS 8 따위)

보도 갈래의 외래어 비율은 5년치 평균 73%(86~90년), 73%(91~95년), 75%(96~00년), 73%(01~05년)로 7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2-3. 교양·오락

<한국방송2> 역시 교양·오락은 네 가지 갈래 가운데 가장 많은 가짓수를 보였다. 전체의 35~50% 범위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 프로그램 이름의 유형은 21년 평균 낱말 1%, 명사구 81%, 문장 형식 17%였다.

외래어 비율은 5년치 평균 41%(86~90년), 34%(91~95년), 50%(96~00년), 59%(01~05년)를 보였다.

21년치를 아울러 봤을 때 어긋나거나 과도하고 적절하지 못한 비율이 맞춤법 1%, 표현 10%, 차별성 6%, 적절성 2% 등으로 나타났다.

2-4. 방송극

방송극 쪽이 강세를 보였다. 3년치씩 묶은 꼭지 비율은 전체의 37%, 46%, 27%, 25%, 20%, 40%, 51%를 보였는데, 이는 교양·오락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방송2>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집하면서 어떤 해는 살살이, 어떤 해는 느슨하게 수집한 까닭에 부분적으로 수량 차이가 난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제1 방송보다 방송극 수가 많은 것으로 나온다.

방송극 제목의 짜임새는 21년 평균 낱말 17%, 명사구 65%, 문장 형식 17% 차례였다. 여기서 문장 형식 제목은 5년 평균 15%(86~90년), 13%(91~95년), 17%(96~00년), 22%(01~05년) 차례로 상승 추세였다.

외래어는 방송극 문패(드라마시티·드라마 스페셜 따위) 영향이 겹쳤으나 5년치 평균으로 23%, 41%, 49%, 33%로 나타났는데, 21년치 평균으로는 34%를 차지했다.

맞춤법·표현·차별·적절성 면에서 전체 평균 1%, 1%, 10%, 1% 비율을 보였다.

드라마·스페셜, 특집, 시티, 시리즈 따위 말이 들어가 문패 외래어를 양산하는 점은 다른 쪽과 같다.

2-5. 어린이

<한국방송2>는 <한국방송1>보다 어린이 폭지가 약간 많았다.

가짓수 차이가 있으나 평균 6~17%로 나타난다.(17%/86~88년, 11%/89~91년, 10%/92~94년, 13%/95~97년, 16%/98~00년, 10%/01~03년, 6%/04~06년) 여기서 2000년대 이후 어린이 프로그램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방송극을 많이 수집해 포함한 게 영향을 끼쳤음을 밝힌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외래어와 아울러 무국적어가 많다는 점도 다른 방송과 같았다. 이는 8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 2000년대를 가리지 않았다. 컴퓨터 게임에서 온 말이나 환상소설·동화 등에서 가져온 이름과 호칭이 많고, 심지어 국내에서 만든 작품이나 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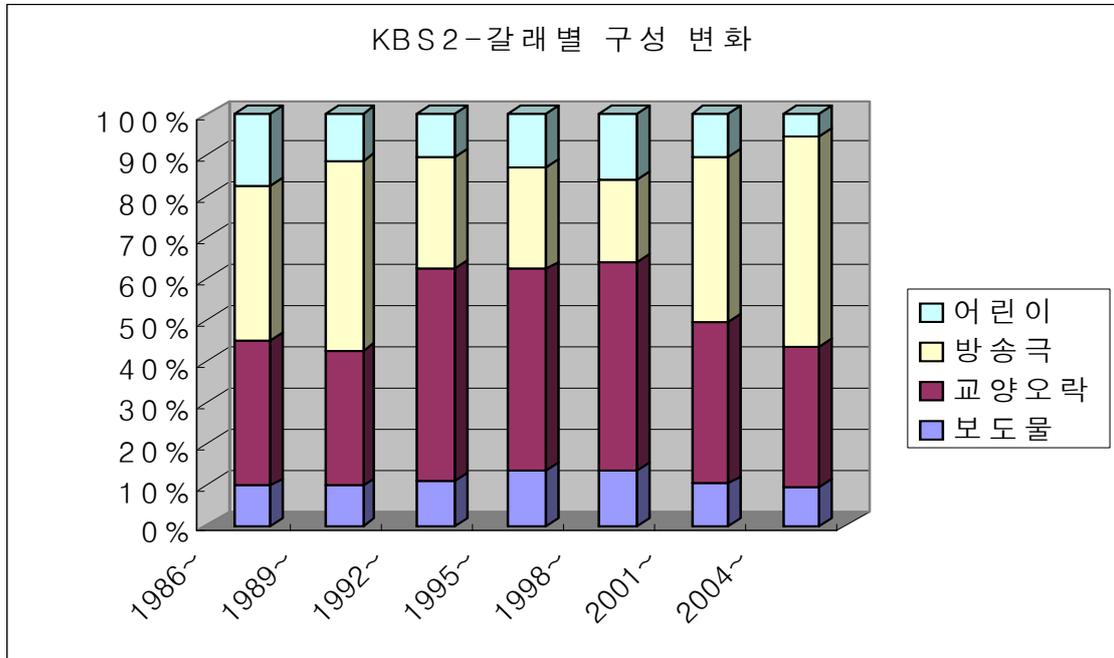
꼬비꼬비, 두치와 뿌꾸, 말괄량이 앤지, 사자왕 가오가이거, 선가드, 콩콩돌이 핑키, 황금로봇 골드런, 환상마을 토포토포, 매직키드 마수리, 몽키 매직, 아이언 키드, 천하통일 파이어비드맨, 탱구와 올라송, 개구장이 스머프, 무적의 왕자 라이온, 꾸러기로보킵, 스타맨, 슈퍼 소년 앤드류, 슈퍼 쌍쌍갑, 올라 블라 블루 짱, 구슬대전 천하통일 파이어 파이어 비드맨, 꼬꼬마 텔레토비, 카드왕 믹스마스터, 토리 GO! GO!, 에이 特攻隊, 마법사의 아들 코리, 치키치키 봉봉, 몽키 매직 Monkey Majik, 펄블 펄블 Fimbles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외래어 비율은 5년치 평균 40%(86~90년), 41%(91~95년), 56%(96~00년), 69%(01~05년)였다. 이는 외래어 비율이 가장 높은 보도 부문(73%)에 다음가는 비율로서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의 우리말 본바탕이 허술함을 보여준다.

맞춤법 3%, 표현 4%, 차별 1%, 적절성 7% 비율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6. 연도별 경향

연도별로 두드러진 추세는 모든 분야에서 외래어·로마자 쓰기가 늘어나고, 잡탕말이 양산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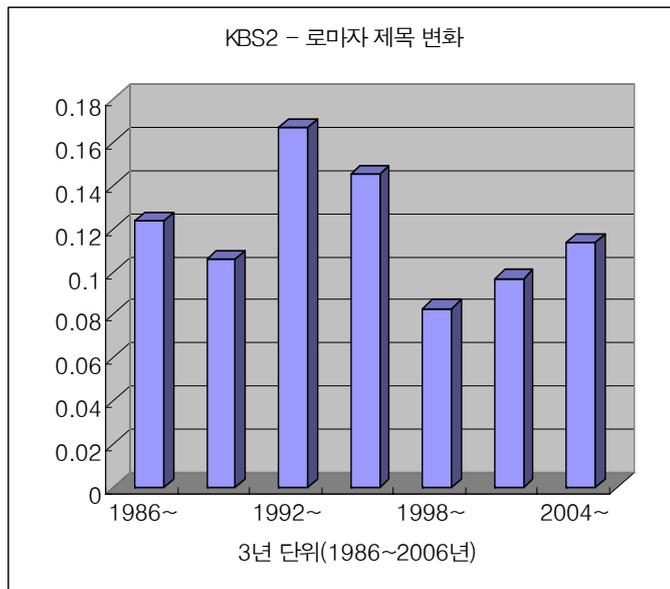


㉞ 실태별 분석

2-7. 조어 표기

로마자는 3년치씩을 합쳐 평균을 냈을 때 12%, 10%, 17%, 15%, 8%, 10%, 11%로 진폭이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 해당 연도 편성표에 일일이 KBS 2TV, KBS를 붙이지 않아 한국방송1보다 수치가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자 표기는 97년까지 40~19%의 추세를 보이다가 98년 이후에는 0~1% 수준으로 떨어진다.

아라비아숫자는 큰 진폭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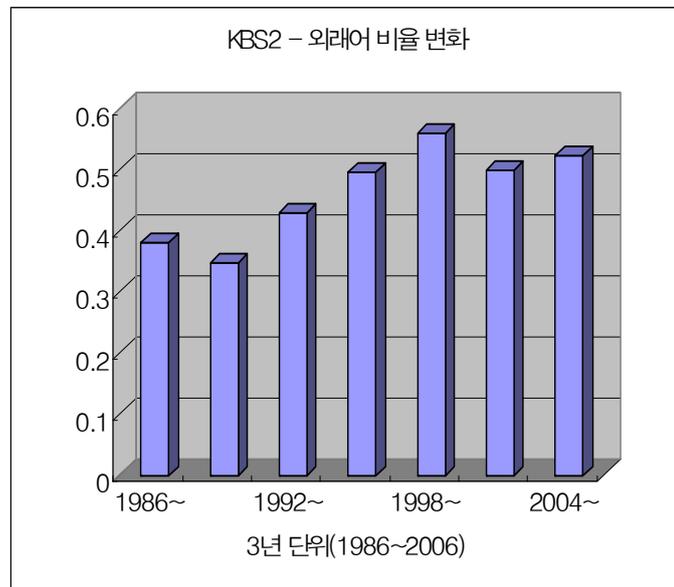
이 10%를 오르내리다 이후 4~8%로 다소 떨어진다.

2-8. 외래어

외래어는 3년치씩 묶었을 때 38%(86~88년), 35%(89~91년), 43%(92~94년), 49%(95~97년), 56%(98년~00년), 50%(01~03년), 52%(04~06년)로 나타난다.

외래어가 많이 쓰이는 분야는 보도, 교양·오락 쪽 제목과 문패, 방송극·영화 문패, 어린이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보도 분야는 거의 외래어였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역시 외래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말이 많이 나타난다.

방송극 쪽에서는 방송극 자체 이름이 아니라 방송극을 안내하고 규정하는 문패 이름이 대부분 드라마·시리즈·스페셜로 붙어 외래어 수치에 포함되었다.



2-9. 맞춤법

맞춤법 또는 표준어법에 어긋나는 곳도 상당수 나타났다.

3년 평균 2%(86~88), 0%(89~91년), 0~2%(92~94년), 1%(95~97년), 1%(98~00년), 1%(01~03년), 2%(04~06년)였다.

한국방송2 역시 입말체 이음씨끝으로 르래(기에)를 비롯하여 ‘-에의·-와의’ 등 불필요한 ‘-의’의 쓰임이 잦았고, 특히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데가 많았다.

띄어쓰기는 거의 전반적으로 무시했는데, 프로그램 글자도안이나 디자인 과정에서 띄어쓰기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2-10. 표현

<한국방송2> 역시 톱·결작·스페셜·베스트·단독·도전·열전·전사·대결·특공대·파이터·탐험 등 자극적이고 과장되며 폭력적인 용어들이나 표현이 적잖았다. 이는 교양·오락·방송극·어린이 분야를 가리지 않았는데, 3년치 평균으로 살폈더니 4%(86~88),

1%(89~91년), 2%(92~94년), 6%(95~97년), 9%(98~00년), 9%(01~03년), 10%(04~06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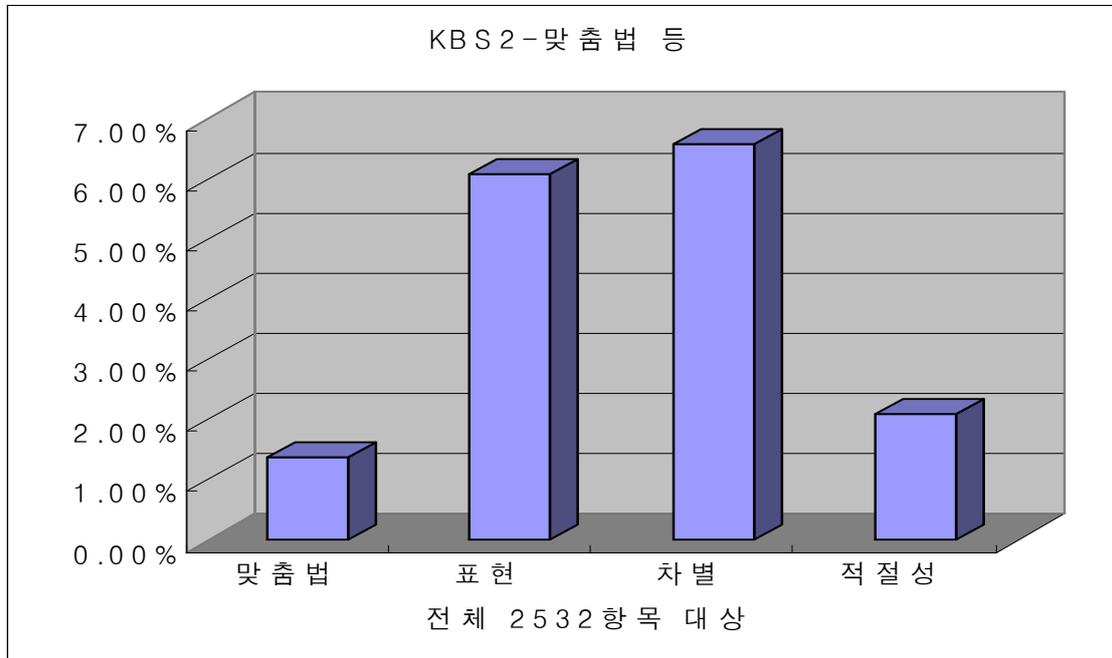
2-11. 차별성

특종, 특선, 특집, 특강, 특별과 같이 ‘특’자 돌림 문패들과 여성·여자·남자·영웅·여왕을 비롯한 성차별적 용어, 기타 세대, 인종 차별적인 용어들이 다수 나타났다. 3년치 묶음 평균 6%(86~88), 9%(89~91년), 7%(92~94년), 6%(95~97년), 5%(98~00년), 6%(01~03년), 7%(04~06년)였다.

2-12. 적절성

표현·차별성·적절성에 두루 저촉되어 복수로 걸린 용어들이 적잖았다. 특히 지나친 로마자 약자, 번역되지 않은 원제목 노출, 원제목을 발음만 한글로 표기한 이름, 정체를 알 수 없는 말, 사회통념상 거슬리는 표현들을 이쪽에 담았다.

이는 3년치 묶음 평균 3%(86~88), 1%(89~91년), 3%(92~94년), 3%(95~97년), 2%(98~00년), 3%(01~03년), 1%(04~06년)였다.



맞춤법, 표현, 차별성 항목에서 걸린 사례를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님의 침묵, 로빈슨크루스, 문화컬럼, 달려라 조오, 개구장이 스머프, 무적의 왕자 라이온, 베를린 최후의 유대인, 시츄에이션 코미디, 深夜에의招待, 그대 있음에, 프로포즈, 지구로의 여행, 생방송 시사 투나잇, 쓰리(3)의 진실 ... [맞춤법]

스타 데이트, 스타 탄생, 슈퍼 소년 앤드류, 熱戰!! 달리는 日曜日, 도전, 車車車, 출동! 지구특공대, 슈퍼 선데이, 도전! 지구탐험대, 이색 도전 별난 대결, 애니멘터리 한국설화, 스페이스 힙합 덕, 발견천하 유레카, 쇼! 파워비디오, 스펀지 ... [표현]

올드미스 다이어리, 歌謠톱10, 퍼즐 特急列車, 올스타 靑白戰, 獨占 女性, 폭소 대작전, VJ 특공대, 스타 집현전, 스타 골든벨 ... [차별성]

2-13. 제목 짜임새

제목 짜임새를 낱말, 명사구, 문장으로 나뉘었을 때 보도 쪽지는 낱말 형식이 0%, 명사구 형식이 95%, 문장 형식이 5%였다. 교양·오락 쪽은 각각 1%, 80%, 16%를 보였고, 방송극은 각각 19%, 63%, 17%를 보였으며, 어린이 쪽지는 4%, 80%, 16%를 보였다.

보도와 교양·오락 쪽에서는 단순한 낱말을 내세운 제목이 거의 없었고, 문장·입말 형식은 교양·오락, 방송극, 어린이 쪽지 두루 16~17%를 보였다. 낱말 형식은 방송극 쪽이 19%로 많은 편이었다.

86년에서 2006년까지 3년 단위로 묶었을 때 전반적으로 문장·입말 형식의 제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11%, 10%, 11%, 18%, 16%, 17%, 18%)

3. 문화방송(MBC)

3-1. 전체 개관

<문화방송>은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1년치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제목 수는 2896개였다.

분석 결과 두드러진 흐름은 한국방송1·2와 달리 <週間基本編成>(MBC TV) 표에서 프로그램 이름 표기를 한자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자 표기에서 특별한 게 없으며, 전체 평균 0~4% 사이에 그쳤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서 외래어(한자어 제외) 비중은 86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3년 평균 29%, 25%, 24%, 31%, 32%, 37%, 37%)

아라비아숫자는 6~19%까지 오르내렸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세를 보인다.

㉠ 갈래별 분석

갈래는 보도(1), 교양·오락(2), 방송극·영화(3), 어린이(4)로 나뉘어 살폈다. 그 분류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보도와 교양·오락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어린이 갈래에는 청소년과도 겹쳐 엄밀히 나누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21년치에 걸쳐 살폈으므로 상당한 객관성을 지녔다고 본다.(문화방송 연도별 통계, 문화방송 갈래별 분석표 참조)

3-2. 보도

보도 프로그램 비율은 전체의 10~16% 비율을 보였다.

보도 꼭지 제목은 방송사마다 큰 차이가 없다. 문화방송의 영어 약자(MBC)를 따고 ‘뉴스’를 붙이는 식이다. ‘문화방송’을 쓴 데는 보도 꼭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짜임은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 MBC 생활뉴스, MBC 스포츠 뉴스, MBC 아침뉴스, MBC 리포트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

여기서 MBC를 제외한다고 해도 새소식 문패나 제목에서 ‘뉴스’가 두루 들어가는 까닭에 외래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외래어 비율은 5년치 평균으로 68%, 84%, 72%, 83%로 전체 평균 76%를 나타냈으며, 표현 1%, 차별 7%, 적절하지 못한 말 3%로 나타났다.

21년치 전체 보도 꼭지에서 명사구 짜임이 92%를 차지했고, 문장 형식이 8%를

차지했다.

3-3. 교양·오락

교양·오락이 네 갈래 가운데 가장 많은 가짓수를 보이는 것은 다른 방송과 같았다. 전체의 38~50%의 진폭을 보였다.

교양·오락 쪽지 이름의 유형은 21년 전체 평균 낱말 4%, 명사구 68%, 문장 27%였다.

교양·오락 쪽지의 외래어 비율은 5년치 평균 37%(86~90년), 39%(91~95년), 50%(96~00년), 56%(01~05년)를 보여 전체 평균 46%를 차지했다.

맞춤법, 표현, 차별성, 적절성 면에서 어긋나거나 과도한 부분은 전체 평균 각각 1%, 8%, 12%, 2%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3-4. 방송극

<문화방송>의 방송극 비율은 30~36%의 진폭을 보였다.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극·영화 쪽은 배우들의 연기, 문학성과 극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예술 영역으로 보아 그 제목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제목 짜임새는 전체 평균 낱말 29%, 명사구 60%, 문장 형식 16% 정도를 차지했다. 낱말과 문장 형식의 제목이 다른 부문보다 비교적 높은 것은 방송극 또는 영화가 독특한 창작물이란 점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겠다.

맞춤법·표현·차별성·적절성에서 21년 전체 평균 2%, 8%, 22%, 2%로 문제점이 다소 많았다. 이 점 역시 창작물이 지닌 독특한 특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방송극이어서 상대적으로 외래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5년치 평균으로 55%(86~90년), 47%(91~95년), 55%(96~00년), 58%(01~05년)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역시 다른 방송처럼 문패(미니시리즈·베스트극장·MBC스페셜 따위) 영향으로 보인다.

3-5. 어린이

문화방송 역시 공영방송 소임이 있어서 그런지 기본 편성에서 어린이 부문도 상당 부분을 편성해 전체의 6~10%를 차지하고 있었다. 8%(86~88), 10%(89~91년), 9%(92~94년), 6%(95~97년), 6%(98~00년), 7%(01~03년), 8%(04~06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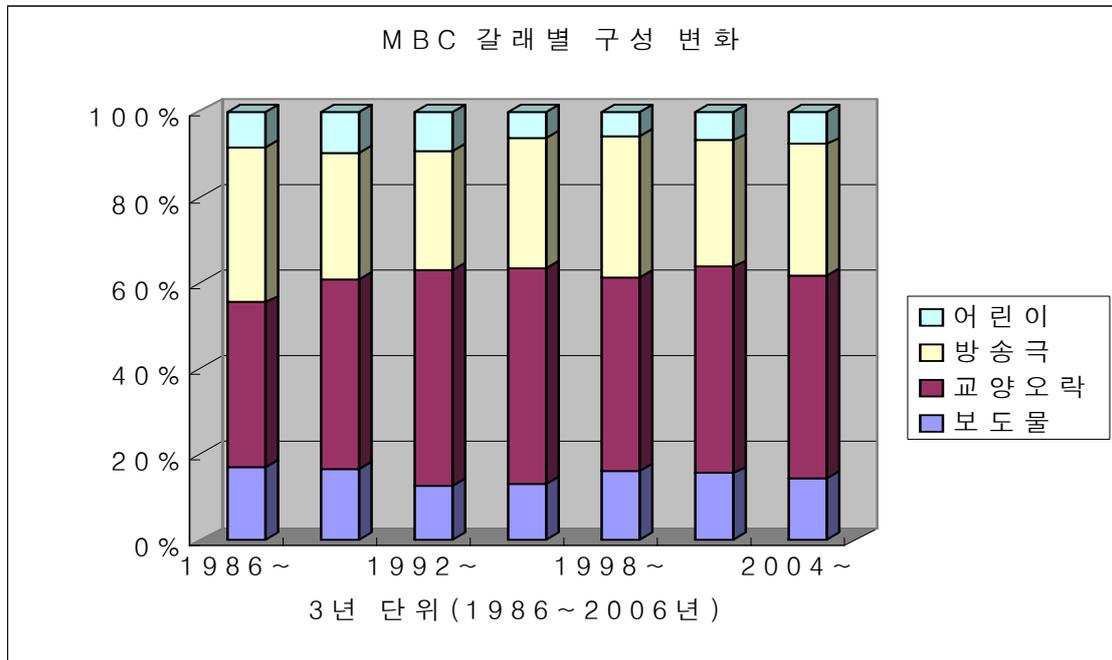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문제는 외래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과 무국적 언어가 많

다는 점이였다.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언어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 비율이 5년치 평균 45%(86~90년), 54%(91~95년), 70%(96~00년), 69%(01~05년)를 보였다. 이는 보도 프로그램 이름에 버금가고, 교양·오락이 전체 평균 46%였던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외래어·외국어 또는 무국적어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맞춤법·표현·차별성·적절성에 걸리는 비율 역시 높았는데, 각각 21년 평균 6%, 12%, 5%, 3%를 보였다.

3-6. 연도별 경향 (연도별 통계와 갈래별 분석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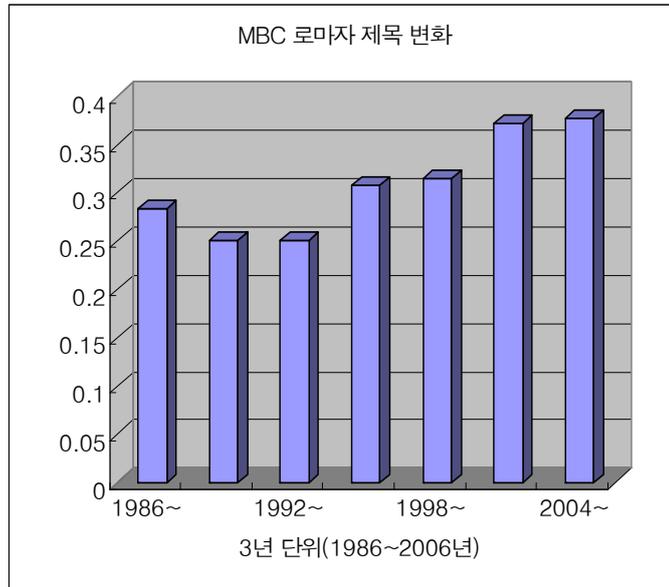
㉞ 실태별 분석

3-7. 조어 표기

로마자는 3년치씩 합쳐 평균을 냈을 때 29%(86~88), 25%(89~91년), 24%(92~94년), 31%(95~97년), 32%(98~00년), 37%(01~03년), 37%(04~06년)였다. 한국방송1·2에 견주어 많게는 3~4% 높았다.

한자 표기는 0~5% 사이로 비교적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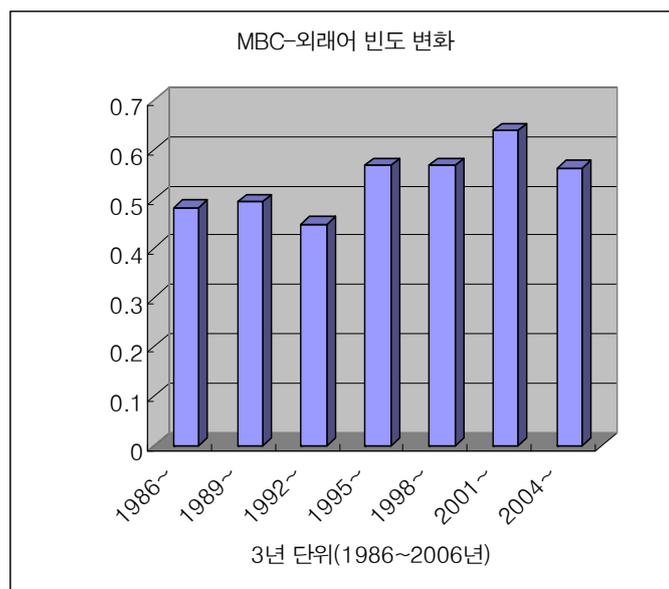
아라비아숫자는 6~19% 사이로 진폭이 있으나 2000년대 들어 견고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3-8. 외래어

외래어는 한국방송1·2와 대차는 없으나 탄탄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3년치씩 묶었을 때 48%(86~88년), 49%(89~91년), 45%(92~94년), 57%(95~97년), 57%(98년~00년), 64%(01~03년), 56%(04~06년)로 나타난다. 한국방송보다 2~5% 범위에서 외래어를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어가 많이 쓰이는 분야는 보도, 교양·오락 쪽 제목과 문패, 방송극·영화 문패, 어린이



꼭지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보도 분야는 대부분이 역시 외래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말이 무척 많았

다.

방송극 쪽에서는 방송극 자체 이름이 아니라 방송극을 안내하고 규정하는 문패 이름에 드라마·시리즈·스페셜...들이 붙어 외래어 수치에 포함되었다. 일일연속극이나 주말연속극, 티브이문학관 등이 상당수였는데도 외래어 문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3-9. 맞춤법

맞춤법 또는 표준어법에 어긋나는 것도 상당수 나타났다.

3년 단위로 묶은 평균치로 2%(86~88년), 1%(89~91년), 2%(92~94년), 2%(95~97년), 2%(98년~00년), 2%(01~03년), 2%(04~06년)로 나타난다.

띄어쓰기는 실제 방송 자막, 프로그램 편성표에서도 대부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 넣지 않았다. 주로 외래어 표기에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게 많은 것은 다른 방송과 동일하다.

스포츠 뉴스와 하일라이트,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앵콜방송 아! 내고장, 수퍼보이, WBA 반탐급 세계 타이틀전 하일라이트, 마법사 맥케이, 로잔느 아줌마, 사랑이 뭐길래, 비틀쥬스, 세느강의 별, 썬더하트, 언터처블, 미찌꼬, 몬타나존스, 스타 레볼루션, 프랑스를 움직이는 학교 그랑제꼴, 쥬라기 원시전, 별나라 수퍼 쭈리, 청춘시트콤 논스톱 '레인보우 로망스', 얼마나 좋길래, 오버 더 레인보우 ...

3-10. 표현

툽·걸작·스페셜·베스트·단독·도전·열전·전사·대결·특공대·파이터·탐험 등 자극적이고 과장되며 전투적인 용어들이나 표현이 적잖았다. 이는 교양·오락·방송극·어린이 분야를 가리지 않았는데, 3년 평균 3%(86~88년), 3%(89~91년), 5%(92~94년), 6%(95~97년), 11%(98년~00년), 11%(01~03년), 15%(04~06년)로 나타난다.

3-11. 차별성

특종, 특선, 특집, 특강, 특별과 같이 '특'자 돌림 문패들과 여성·여자·남자·영웅·여왕을 비롯한 성차별적 용어, 기타 세대, 인종 차별적인 용어들이 다수 나타났다. 이 역시 평균 최소 전체의 4%에서 최고 14%에 이른다. 프로그램 이름을 튀도록 달아야 눈에 띈다는 의식에다 차별성의 폐해에 무딘 상태에서 제목을 다는 데서 왔을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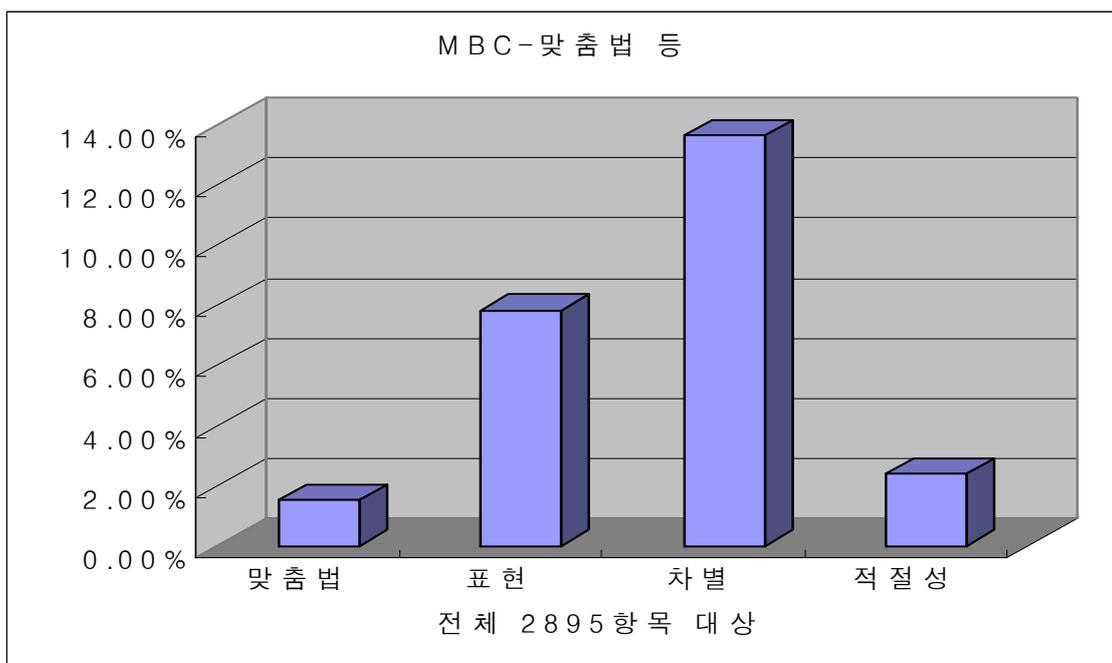
3년 묶음 평균 11%(86~88년), 10%(89~91년), 14%(92~94년), 16%(95~97년), 15%(98년~00년), 15%(01~03년), 14%(04~06년)로 나타난다.

3-12. 적절성

이 말은 표현이나 차별성과 겹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표현·차별성·적절성에 두루 저촉되어 복수로 걸린 용어들이 적잖은 점은 다른 방송과 비슷하다.

3년 평균으로 따져 1%(86~88년), 2%(89~91년), 2%(92~94년), 1%(95~97년), 1%(98년~00년), 4%(01~03년), 6%(04~06년)로 나타난다.

도전! 추리특급, 와!? @멋진세상, 뉴 논스톱 스페셜, 'No춘향vs안몽룡?', 텔레에세이 여인의 굴레, 특선 MBC다큐멘터리 'U월드의 미래, IT's KOREA', "비바크니블" Viva Knievel, 사랑해 당신을, 집중 퀴즈테크, 로드퀴즈 현장출동, 시사매거진 2580, 이홍렬의 해피통신, 리플레이스먼트 킬러(The Replacement Killers), 생방송 이슈&이슈, 일요미니트콤 '두근두근 체인지', 생방송 토요"이레", 가족愛 발견, 웃는 Day ...



3-13. 제목 짜임새

낱말, 명사구, 문장으로 나뉘었을 때, 갈래별로 보도물이 각각 0%, 92%, 8%, 교양·오락 쪽지가 4%, 68%, 22%, 방송극이 22%, 63%, 15%, 어린이 쪽지가 22%, 67%, 10%로 나타났다.

낱말 형식이 방송극과 어린이 쪽지에 비교적 많았고, 문장·입말 형식이 교양·오락 쪽지에서 많았으며(22%), 그 다음으로 방송극, 어린이 쪽지 차례였다.

4. 교육방송(EBS)

4-1. 전체 개관

교육방송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6년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 제목 수는 3714개였다.

교육방송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이 주된 방송거리여서 갈래를 보도(1), 교양·오락(2), 방송극(3), 어린이(4)에 더하여 ‘학습’(5) 분야를 하나 더 설정했다. 학습 프로그램 꼭지는 10~30%를 오갔다. 특히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프로그램도 많아 평균 50%를 웃돌았다. 대신 보도 분야와 방송극 쪽은 3% 이하, 10% 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분석 결과 로마자·아라비아숫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1% 이하)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대신 로마자가 들어간 제목은 평균 9%에서 17%에 이른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서 외래어(한자어 제외) 비중은 91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3년 평균 18%, 37%, 51%, 62%, 64%) 아라비아숫자는 13~20%를 오르내렸다.

한편, 교육방송에서 ‘학습’(5) 부문을 제외하고 외래어가 쓰인 비율을 내어본 결과, 24%(91년), 40%(96년), 63%(01년), 63%(06년)를 보였다. 이는 학습을 포함한 비율 23%(91년), 36%(96년), 64%(01년), 64%(06년)와 대차가 없었다.

㉠ 갈래별 분석

갈래는 보도(1), 교양·오락(2), 방송극·영화(3), 어린이(4), 학습(5)으로 나뉘어 살폈다. 그 분류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교양·오락과 학습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어린이 갈래에는 청소년과도 겹쳐 엄밀히 나누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16년치에 걸쳐 살폈으므로 상당한 객관성을 지녔다고 본다.(교육방송 연도별 통계표와 갈래별 분석표 참조)

4-2. 보도

보도 프로그램 비율은 최대 3%(91~96년까지)였고, 나머지는 그 이하여서 비중이 썩 낮았다. 그 내용도 교육과 관련된 소식으로 한정됐다.

보도 프로그램 문패는 ‘EBS 교육문화뉴스, 교육문화 소식, 교육소식, 와이드 교육문화 소식, 취업정보 …’ 정도였다.

보도 프로그램 제목은 명사구 형식이 대부분이었고, 외래어 비율은 전체 평균 37%였다. 특별 방송이 33%나 되었고, 표현에 걸맞지 않은 제목이 2% 정도였다.

4-3. 교양·오락

교양·오락이 다섯 갈래 가운데 가장 많은 가짓수를 보였다. 전체의 3년 평균 62%(91~93년), 67%(94~96년), 60%(97~99년), 49%(00~02년), 52%(03~05년)로 나타났다.

교양·오락 프로그램 이름의 유형은 16년 평균 낱말 6%, 명사구 형식 75%, 문장 형식 20%를 보였다.

외래어 비율은 5년 평균 26%(91~95년), 53%(96~00년), 67%(01~05년)였다. 늘어나는 추세가 무척 가파르다.

맞춤법·표현·차별성·적절성에 걸린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왔다. 전체 평균은 각각 2%, 2%, 29%, 4%가 나왔다. 맞춤법은 거의 외래어 표기 잘못이었다.

4-4. 방송극

<교육방송>의 방송극 비율은 3년 평균 2%(91~93년), 8%(94~96년), 7%(97~99년), 8%(00~02년), 7%(03~05년)를 보였다.

내용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방송극, 만화, 영화들이다.

제목의 짜임새는 전체 평균 낱말 10%, 명사구 형식 80%, 문장 형식 9%였다.

맞춤법·표현·차별성·적절성에서는 전체 평균 각각 6%, 0%, 49%, 0%를 보였다.

외래어는 5년치 평균 61%, 62%, 60%를 보였고, 표기는 전체 평균으로 로마자 7%, 한자 0%, 아라비아숫자 5%를 보였다.

4-5. 어린이

<교육방송>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독립한 ‘공사’로서 시청률 경쟁 등에 얽매이지 않고 바르고 건전한 방송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로 알려졌다.

주된 대상이 어린이·청소년이지만 특히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수를 따로 나눠봤다. 3년 평균 4%(91~93), 6%(94~96년), 13%(97~99년), 25%(00~02년), 30%(03~05년) 그리고 2006년에는 34%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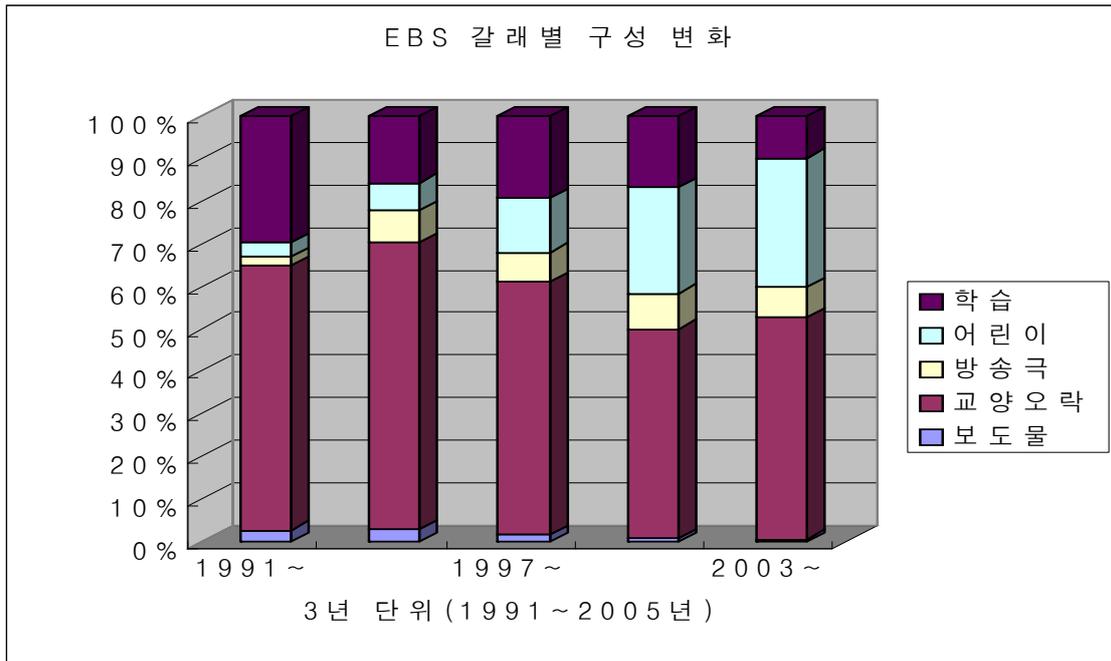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외래어 비율은 5년 평균 6%(91~95년), 37%(96~00년), 58%(01~05년)로 나타났다. 외래어와 무국적 언어가 많다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언어 체계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6. 학습물

<교육방송>의 학습물은 전체 꼭지에서 평균 5%를 차지했다. 이는 주로 학교 교과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잡았는데, 포괄적으로 교육방송의 모든 내용이 학습과 관련이 있어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습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학습 꼭지 이름 역시 일반 방송 꼭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외래어표기법에 어긋나거나 적절하지 못한 꼭지 이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양케이트쇼/ 싸커보이 토토/ 수시모집 가이드/ 공자曰 맹자曰 알지서당/ 먼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Final 수능특강 과학탐구/ 수능대비 올 가이드/ English 오픈 Cafe/ 다큐멘터리 The Sun/ 소프트웨어의 이해/ 구술&심층면접/ TV탐구 왜 (Why)?/ 자연다큐멘터리 CITES-종의 목시록/ Inside Culture 문화 문화인/ 토크한마당/ e-learning과 한국교육의 미래/별난 감쪽 수호천사/ Hello! 안녕하세요 ...

4-7. 연도별 경향 (1·3·5년차는 교육방송 연도별, 갈래별 표 참조)



㉞ 실태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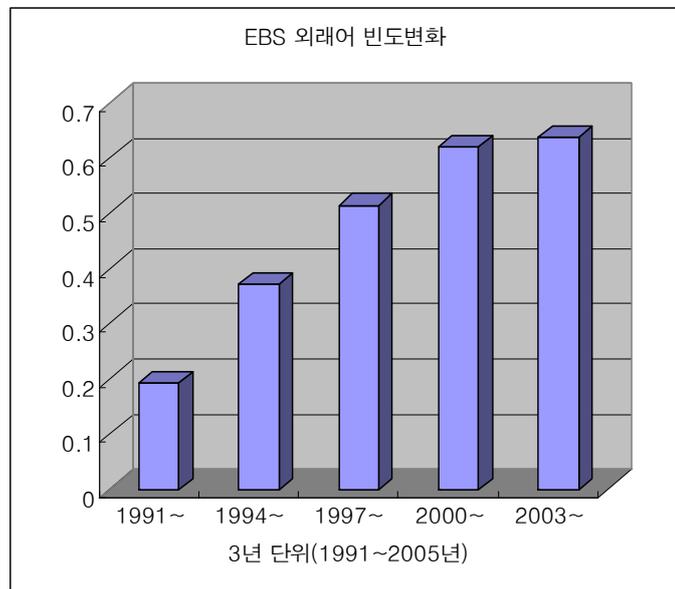
4-8. 조어 표기

로마자는 3년치씩을 합쳐 평균을 냈을 때 9%(91~93), 11%(94~96년), 16%(97~99년), 15%(00~02년), 16%(03~05년), 그리고 2006년 17%로 나타났다. 한자표기는 0~1% 사이였다.

아라비아숫자는 17%(91~93년), 13%(94~96년), 17%(97~99년), 20%(00~02년), 19%(03~05년)를 보였다.

4-9. 외래어

예상과 달리 외래어를 쓰는 비율이 다른 방송에 못지않았다.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3년치씩 묶었을 때 평균 19%(91~93년), 37%(94~96년), 51%(97~99년), 62%(00~02년), 64%(03~05년), 그리고 2006년에도 64%란 높은 비율을 보인다.



4-10. 맞춤법

맞춤법 또는 표준어법에 어긋나는 곳도 상당수 나타났다.

3년 단위로 묶은 평균치로 2%(91~93년), 3%(94~96년), 2%(97~99년), 3%(00~02년), 2%(03년~05년)를 보였으며, 2006년 역시 2%를 보였다. 이는 다른 방송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서 교육방송답지 못한 일로 보인다.

그 유형은 외래어 표기 잘못(양케이트쇼→양케트쇼, 카운셀러→카운슬러, 싸커보이 토토→사커보이 토토→축구 소년 토토, 이견 내꺼야→이견 내거야, 노트담의 꼽추→노트르담의 꼽추, 디쉬 가든→디시 가든, 수퍼 우주 탐험대→슈퍼~, 앙코르 특선 공연 캣츠→~캐츠, 달려라 스피로우→~스피로, 다큐멘타리→다큐멘터리, 내 친구 드래곤→~드래건, 톨레랑스→톨레랑스, 반짝 모자 노띠→~노티 ...)이 많았다. 외래어 표기가 어긋나는 게 많은 것은 다른 방송과 동일하다.

띄어쓰기는 어긋나는 게 많았으나 실제 방송 자막과 대조하기가 어려워 분석 대

상에 넣지 않았다.

4-11. 표현

3년 평균 2%(91~93년), 0%(94~96년), 0%(97~99년), 1%(00~02년), 2%(03~05년)를 보였고 2006년에도 2%를 보였다.

4-12. 차별성

특종·특선·특집·특강·특별 ...처럼 ‘특’자 돌림 문패들이 많아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다.

3년 묶음 평균 5%(91~93년), 10%(94~96년), 32%(97~99년), 40%(00~02년), 36%(03~05년)를 보였으며, 2006년에도 32%를 보였다.

‘학습’ 갈래가 상당수여서 특강이 특히 많았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계기마다 이에 걸맞은 편성을 하는 까닭에 임시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의 3분의 1이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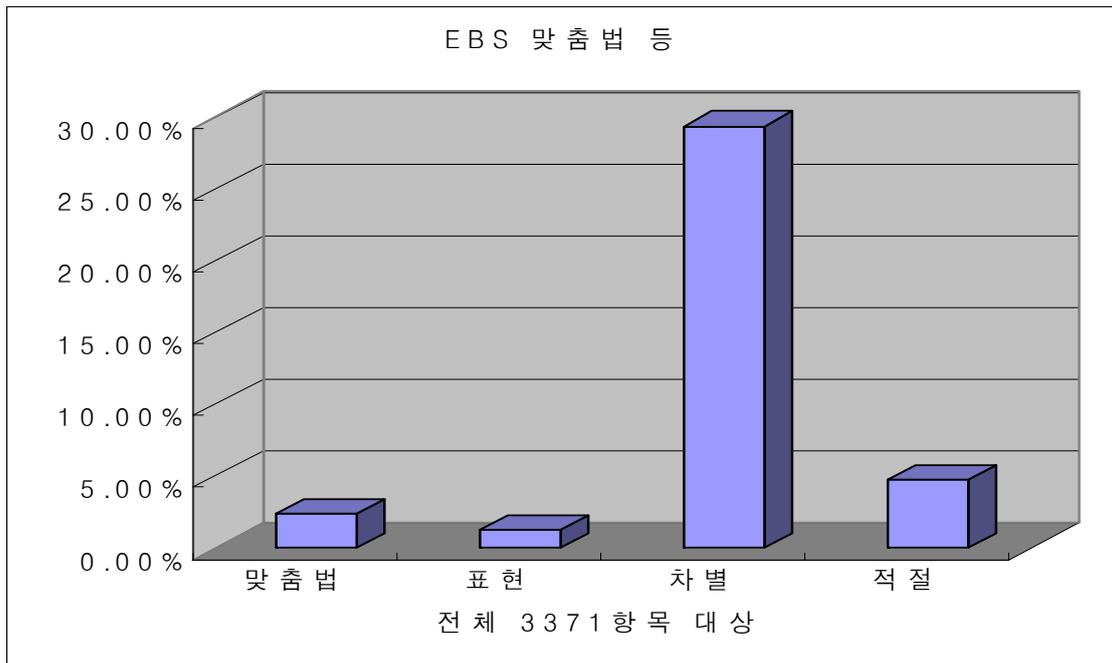
4-13. 적절성

이 말은 표현이나 차별성과 겹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표현·차별성·적절성에 두루 저촉되어 복수로 걸린 용어들이 적잖은 점은 다른 방송과 비슷하다.

3년 평균으로 따져 2%(91~93년), 2%(94~96년), 6%(97~99년), 6%(00~02년), 5%(03~05년)를 보였고, 2006년에는 2%를 보였다.

교육방송 꼭지 이름에서 맞춤법, 표현, 차별, 적절성에 걸리는 꼭지 이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날으는 로켓, 템즈강의 노래, 세빌리아의 이발사, 여성진출 유망직종-카운셀러, 덩동댕 유치원 -이건 내꺼야, 산타크로스, TV 원예 -디쉬 가든, 사랑의 교육학 -맛별이를 한다구요, EBS 음악실 -빼빼 로메로 내한 연주, 화일 처리, 특선만화 -벤자민 플랭클린, 특선만화 -알렉산더 그레함 벨, 수퍼 우주 탐험대, 달려라 스피로우, 특선 영화 <스노우맨>, 말썹꾸러기 띠떼프, 싸커보이 토토, 독서전략, 도전! 새로운 나, 사이언스 大戰, 아름다운 도전, 퀴즈 천하통일, 도전! 죽마고우, IT 꿈나무 왕중왕, 도전하는 여성이 세상을 움직인다, 도전! 유레카, 지식 다락방(多樂房), 지식의 최전선, 리스닝 스페셜, 특집 -경제위기 극복의 길, 특별생방송-EBS FINAL 수능특강 실전 모의고사-사탐1, 2 ...



4-14. 제목 짜임새

낱말, 명사구, 문장으로 나뉘었을 때 보도, 교양·오락, 방송극, 어린이 갈래 차례로 낱말 형식이 0%, 6%, 10%, 3%를 보였으며, 명사구 형식이 91%, 78%, 80%, 76%를 보였다. 문장·입말 형식은 각각 5%, 17%, 9%, 10%를 보였다.

명사구 형식이 모든 갈래에서 많은 것은 다른 방송과 같다. 교육방송 제목에서는 특히 명사구 형식의 제목이 긴 게 특징이었다. 이는 교과 이름(문패)과 강좌의 특징을 나타낸 말이 겹쳐 이어진 짜임이 많은 까닭이다.

5. 에스비에스(SBS)

5-1. 전체 개관

<에스비에스>(옛 서울방송·SBS)는 1991년(창립 해)부터 2006년까지 16년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 꼭지 수는 모두 2375개였다.

에스비에스는 한국방송1·2, 문화방송, 교육방송 등과는 달리 민영방송이란 점을 빼고는 여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구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보도(1), 교양·오락(2), 방송극(3), 어린이(4)로 나뉘어 살폈다.

보도 분야 프로그램 비율은 3년 평균 14%(91~93년), 15%(94~96년), 11%(97~99년), 7%(00~02년), 8%(03~05년)를 보였으며, 교양·오락은 53%, 57%, 60%, 78%, 75%, 55%를, 방송극은 23%, 21%, 22%, 13%, 15%, 15%를 보였다. 특히 어린이 쪽 편성 비율이 10%, 6%, 6%, 4%, 2%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표기 쪽에서, 로마자·아라비아숫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1% 이하) 대신 로마자가 들어간 제목은 창사 초기 3년 평균 31%로 시작해 이후 15~20%를 유지했다. 아라비아숫자는 8%에서 시작해 16%(94~96년), 15%(97~99년), 12%(00~02년), 10%(03~05년)를 보였다.

에스비에스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 외래어(한자어 제외) 비중은 창사 해인 91년부터 60%대를 웃돌았다.(3년 평균 61%, 63%, 66%, 67%, 63%) 06년에는 68%였다.

에스비에스 방송 꼭지 이름 실태의 가장 큰 특징은 외래어 구성이 60%를 넘는다는 점이다.

㉠ 갈래별 분석

5-2. 보도

보도 프로그램 비율은 3년 평균 14%(91~93년), 15%(94~96년), 11%(97~99년), 7%(00~02년), 8%(03~05년)를 보였다.

에스비에스 보도 프로그램 문패 역시 자사의 로마자 약자를 앞세워 SBS 뉴스, SBS 뉴스쇼, SBS 스포츠 뉴스, SBS 마감 뉴스, SBS 헤드라인 뉴스, SBS 뉴스라인, SBS 뉴스 퍼레이드, SBS 나이트라인, SBS 뉴스타임 ... 등으로 되어 있었다,

보도 프로그램 제목은 명사구 형식이 대부분이었고, 문장 형식이 15% 정도 보였

으며, 외래어 비율은 전체 평균 85% 수준이었다.

5-3. 교양·오락

교양·오락이 네 갈래 가운데 가장 많아 꼭지 비율이 3년 평균 53%, 57%, 60%, 78%, 75%, 55%를 보였다.

교양·오락 프로그램 이름의 유형은 16년 평균 낱말 1%, 명사구 73%, 문장 형식 25%를 보였다.

외래어 비율은 5년 평균 53%(91~95년), 65%(96~00년), 63%(01~05년)였으며, 전체 평균 61%였다.

맞춤법·표현·차별성·적절성 면에서 어긋난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왔다. 전체 평균 2%, 14%, 16%, 3%가 나왔다.

5-4. 방송극

에스비에스의 방송극 꼭지 비율은 3년 평균 23%(91~93년), 21%(94~96년), 22%(97~99년), 13%(00~02년), 15%(03~05년)를 보였다. 06년에는 16%를 보인다.

제목의 짜임새는 전체 평균 낱말 24%, 명사구 65%, 문장 형식 20%였다. 방송극에서는 상대적으로 낱말로 된 제목과 문장으로 된 제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맞춤법·표현·차별성·적절성에서는 전체 평균 각각 1%, 13%, 33%, 1%를 보였다.

외래어는 5년치 평균 80%, 66%, 64%를 보였고, 표기는 전체 평균으로 로마자 17%, 한자 0%, 아라비아숫자 5%를 보였다.

5-5.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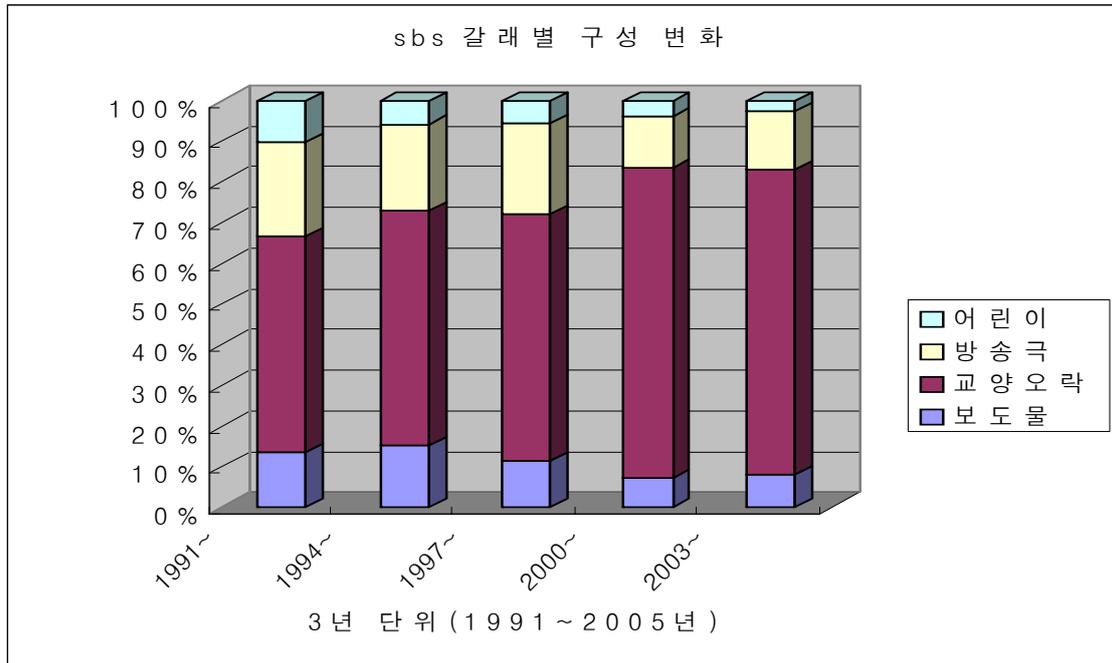
에스비에스는 어린이 프로그램 제목 비율이 3년 평균 10%, 6%, 6%, 4%, 2%를 보였다.

표기에서, 로마자 3%, 한자 0%, 아라비아숫자 2%를 보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외래어 비율은 45%(91~95년), 57%(96~00년), 22%(01~05년)로 전체 평균 43%로 나타났다.

맞춤법은 16년 전체 평균 2%, 표현이 13%, 차별적인 용어가 4%, 적절하지 못한 용어가 4%로 나타난다.

5-6. 연도별 경향 (1·3·5년차는 에스비에스 연도별, 갈래별 표 참조)



㉞ 실태별 분석

5-7. 조어·표기

로마자는 3년치씩을 합쳐 평균을 냈을 때 31%(91~93), 21%(94~96년), 17%(97~99년), 16%(00~02년), 15%(03~05년), 그리고 2006년 19%로 나타났다.

한자 표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아라비아숫자는 3년 평균 8%(91~93년), 16%(94~96년), 15%(97~99년), 16%(00~02년), 15%(03~05년)를 보였다. 06년은 12%를 보였다.

5-8. 외래어

외래어를 쓰는 비율이 에스비에스는 다른 방송보다 상당히 높았다. 더는 늘어날 여지가 없을 정도였는데, 3년치씩 묶었을 때 평균 61%(91~93년), 63%(94~96년), 66%(97~99년), 67%(00~02년), 63%(03~05년), 그리고 2006년에도 68%란 높은 비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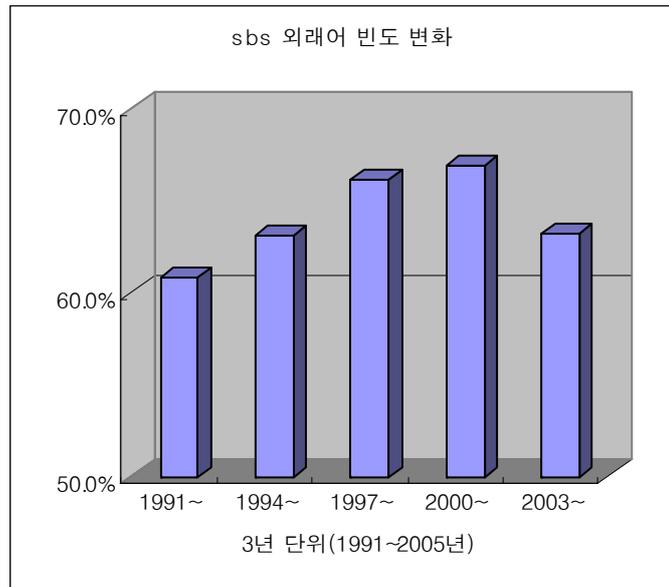
5-9. 맞춤법

맞춤법 또는 표준어법에 어긋나는 곳도 상당수 나타났다.

3년 단위로 묶은 평균치로 1%(91~93년), 1%(94~96년), 3%(97~99년), 1%(00~02년), 2%(03년~05년)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0%를 보였다.

그 유형은 외래어 표기 잘못이 많았다. 외래어 표기에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게 많은 것은 다른 방송과 동일하다.

띄어쓰기는 실제 방송 자막과 대조·확인하기가 어려워 분석 대상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편성표와 실제 방송 자막 두루 제대로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10. 표현

3년 평균 7%(91~93년), 9%(94~96년), 11%(97~99년), 15%(00~02년), 17%(03~05년)를 보였고, 2006년에도 14%를 보였다.

5-11. 차별성

특종·특선·특집·특강·특별 ...처럼 ‘특’자 돌림 문패들이 많아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다.

3년 묶음 평균 14%(91~93년), 22%(94~96년), 20%(97~99년), 16%(00~02년), 18%(03~05년)를 보였으며, 2006년에도 21%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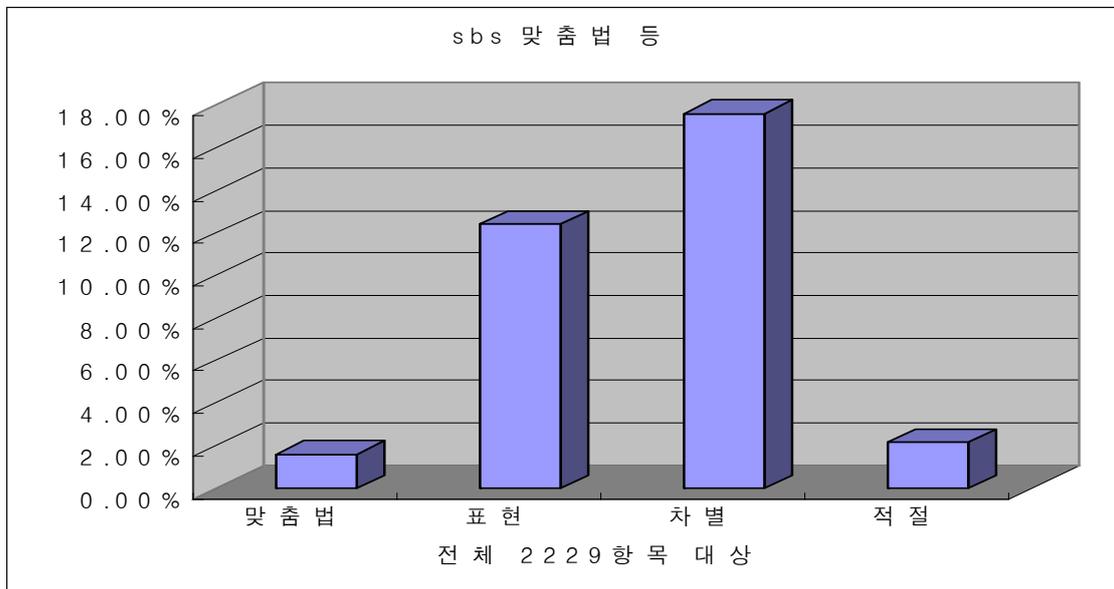
5-12. 적절성

이 말은 표현이나 차별성과 겹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표현·차별성·적절성에 두루 저촉되어 복수로 걸린 용어들이 적잖은 점은 다른 방송 프로그램 이름과 비슷하다.

3년 평균으로 따져 1%(91~93년), 3%(94~96년), 2%(97~99년), 3%(00~02년), 2%(03~05년)를 보였다.

몇가지 두드러진 보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까레이즈의 딸, 아끼코의 꽃신, '95 웨민 24, 토요 미스터리 극장, 스타 TV강좌 화이팅! 하이틴!, 방랑! 티벳, 임백천의 윈터플 투나잇, 특집 락 콘서트, 뷰티플 라이프, 씨크릿 가든 내한 공연, 뷰티플 선데이, 오페라 리콜렛또, 헬로우 퀴즈 짱, 아테네로부터의 메세지, 킹엔아이, 줄리어드 음대 클래식, 한류 올스타 썸미트, 아시아 송 페스티발, 대결! 20/40, 출동, 우리는 친구, 특별기획 21세기에의 도전,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 스타! 서울 스타, 환경탐사 그린맨을 찾아라, 짜즈, 설날특집 트롯 3대 천왕, 폭소 하이スクール, 김혜수 플러스 유, 스포츠 대탐험, 여자만세, 빅스타 쇼 친구, 나쁜 여자들, 스타 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 출동 VJ 특급, 드라마 스페셜 올인, 도전! 100만 달러, 올스타 대격돌, SBS 빅스타 총출동, 집중! 여섯명의 여자, 이 남자가 사는 법, 이 여자가 사는 법, 생방송 남자를 위하여, 특집 다큐멘터리 검은대륙의 빛남아공, 설날특집 트롯 3대 천왕, 아름다운 그녀, 특집 콘서트 '99 디바스 라이브,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21세기 생존 전략, 디자인 ...



5-13. 제목 짜임새

낱말, 명사구, 문장으로 나뉘었을 때 보도, 교양·오락, 방송극, 어린이 갈래 차례로 낱말 형식이 1%, 2%, 21%, 2%를 보였다. 명사구 형식이 84%, 72%, 58%, 80%를 보였으며, 문장·입말 형식이 각각 13%, 25%, 20%, 18%를 보였다.

방송극에서 낱말 형식의 제목이 21%로 다른 갈래보다 많은 게 특징이며, 문장·입말 형식이 다른 방송 쪽보다 비교적 많았다.

IV. 마무리 종합

지상파 방송 채널 다섯 곳의 방송 프로그램 실태를 대충 살펴봤다. <한국방송1>, <한국방송2>, <문화방송>은 1986년부터, <교육방송>과 <에스비에스>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였다. 전체로 따져 제목 꼭지가 1만3633개였다.

모든 분야 언어가 시대 흐름·풍조와 상관관계가 밀접하듯이 21년 또는 16년이란 세월과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와 글자 표기, 언어 실태를 떼어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확인된다. 아울러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화와 유행을 앞장서 이끄는 구실을 하는 게 방송 매체라는 점도 확인된다.

1980년대 후반은 5년여에 걸친 새로운 군부독재가 꺾이고 87년 6월 항쟁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라는 전에 없던 큰 행사를 치렀으며, 프로야구 등 새로운 볼거리로 눈을 돌리던 시기이기도 하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주제와 소재를 다룬 꼭지들이 많았다.

90년대 중반 이른바 세계화 물결, 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개방, 새천년 들어 ‘글로벌’ 시대에 이르면서 방송 프로그램 언어도 그런 흐름을 만감하게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장서서 주도하고 조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방송 프로그램 꼭지 이름에서 그 특징을 한마디로 몽똥그린다면 ‘잡탕 언어’라 하겠다. 그 제목들은 실제 방송을 봐야 겨우 뜻을 짐작할 말들이 많았고, 괜찮은 새말로 챙겨 거들 만한 이름들은 무척 드물었다.

‘오늘은 반상회’(87년), ‘특별기획 신념과 헌신의 나날들-전두환 대통령 2555일’, ‘특별기획 역사를 세운 큰 약속-단임의지’(88년), ‘일해재단 청문회’(88년), ‘광주특위 청문회’(한국방송1, 89년) 등 그 시대 나름의 특징적인 꼭지들이 보인다. ‘세계는 하나, 서울에서 만납시다’, ‘스포츠 파노라마’, ‘87 프로야구’들은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 프로야구 등의 활성화에 따른 말들이겠다. ‘체육’이 스포츠, ‘대회’나 ‘경기’가 게임으로 자리를 내주던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일본어 회화나 영어 회화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것도 80년대다.

90년대는 개혁·개방과 세계화 물결, 그리고 ‘영어 열풍’이 드센 시기다. 97년 외환위기를 맞고서는 ‘나라를 살립시다-금을 모읍시다’(한국방송)처럼 애국적인 프로그램이 보인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민’은 하루아침에 ‘나라’나 기업 조직이 허물어지는 걸 보고서 그의 허술함을 절감한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개인·기업체·국가의 비극적 아픔들은 2000년대 초반의 경제·언어 식민화로 기울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흔들고 바꾸는 데 이른다. 오늘날 영어는 마침내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어 거품제로 굳어져 가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적 요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방송은 시대의 의제를 선점하고, 색다른 것을 소개하는 데 애쓰는 연장인데다 그것으

로 돈벌이를 하는 까닭이다. 정부·기업·언론 두루 세계화를 부추기던 시기다.

한편으로, 보도 윤리는 물론 시대적 흐름을 거르고 때로는 거슬러 고유 문화의 발전과 균형을 맞추는 데 힘을 써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진정한 언론매체로 설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자세 잡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1. 덜된 프로그램 제목의 부정적 효과

방송 종사자들이 로마자 표기나 어색한 조어, 억지스런 표현, 차별적 용어 등을 일부러 써서 부정적으로 비치고자 했을 리는 없다. 의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릇으로 썼거나 이 정도는 해야 통할 것으로 여겼을 수는 있겠다. 문제는 그 부정적 영향이 무척 크다는 점이다. 말이나 글은 자주 대하다 보면 따라하고 버릇이 들기 마련이다. 의식을 마비시키고 물들게 하는 성금이 탁월하다. 시청자들도 웬만해서는 이를 그때그때 항의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그 영향을 곧바로 받는다. 의도하지 않은 대가가 결국 우리말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목들에서 확인된다. 아래 꼭지들은 글자 장난이 지나친데다 잘못된 표기, 유치한 표현들이 뒤섞인 보기들이다.

지식 다락방(多樂房), 아침드라마 그대 있음에, 夜!한밤에, 헬로우 퀴즈 짱, 95 웨민 24, 오버 더 레인보우, 청춘시트콤 논스톱 ‘레인보우 로망스’, 비틀쥬스, 앙코르 개그 夜, ‘No춘향vs안몽룡’?, 생방송 토요“이레”, 와!?! ©멋진세상, KBS특강 e-비즈니스에 도전하라, 쇼 特急, 挑戰, 車.車.車, 가족愛 발견, 류시원 황연정의 NOW, 개그 ONE, 녹색보고 나의 살던 고향은, 클릭 날씨@생활, 공자曰 맹자曰 알知서당, 클릭 안전짱, 웃는 day, 신동엽 남희석의 맨II맨, 스타TV강좌 화이팅! 하이틴!,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

2. 어린이 꼭지 외래어

어린이 프로그램은 놀이·동화·만화 두루 가까운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 쪽 작품들을 가져다 방영하면서 이른바 국제화·세계화와 관련짓고, 이로써 외래어와 무국적 용어들을 양산한다. 이는 국내 창작물에도 영향을 끼쳐 알곳은 이름을 짓는 데까지 이른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2000년대 들어 컴퓨터 게임 용어, 영미 판타지 소설의 등장인물 이름이나 말들을 따서 만든 부자연스런 이름과 무국적 용어들이 술하게 등장해 오늘날에 이른다.

슈퍼소녀 비키, 밀림의 왕자 레오, 뽀빠이와 아들, 디즈니랜드, 개구쟁이 스머프, 용감한 래시, 날아라 슈퍼보드, 몽키 매직, 리리카 SOS, 천하통일 파이어비드맨, 용의 전설 드래곤 부스터, 꾸러기 로보캡, 탕구와 올라송, 토리 GO GO(이상 한국방송 1, 2), 개구쟁이 푸무클, 소년코나의 모험, 시골소녀 폴리아나, 마야붕붕, 무적의 로보트 고바리안, 무적의 실버호크, 마법사 맥케이, 외계인 알프, 쾌걸롱맨 나롱이(이상 문화방송) 특선만화 스피릿, 미스터 빈, 듀얼 마스터즈, 빛의 전사 프리큐어, 메가 레인저, 포켓 몬스터, 카드캡터 체리, 베이사이드 알개들, 미래영웅 아이언리거(이상 에스비에스), 꼬마거북 프랭클린, 꼬마생쥐 메이지, 꼬마천사 지지, 내 친구 아서, 꼬꼬마 텔레토비, 꼬마유령 캐스퍼, 꼬비꼬비, 싸커보이 토토, 빨간 트랙터 통통, 빼꼼의 머그잔 여행, 사랑해 클리포드(이상 교육방송)

3. 차별적 표현과 용어들

차별적 용어를 쓰지 말자는 얘기는 방송계나 언론계뿐만 아니라 관련 모임이나 개인, 사회 두루 강조하고 그 운동이 때서운 쪽이다. 그러나 원체 언어가 차별·구분을 본질로 하는 까닭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분야다.

인중, 색깔, 남녀, 신분, 권위 따위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면이 있으나 쉬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특선·특집·특종·특강 따위 ‘특’자 돌림이나 이를 대체하는 영어 스페셜·베스트·스타·슈퍼 …들, 걸작·명작·대작 …들은 방송 쪽지 제목에서 내용과 달리 버릇으로 쓰인다. 독점·도전·열전·대전·승부·승전·전략·작전 …들 전투적인 용어들은 쓰면 쓸수록 세기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우리말 특유의 풀이말 쓰임을 무력화한다. 이런 말들을 비롯한 차별·전투적 한자말이나 표현들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무척 많은 수를 차지했다. 꼭 필요한 데가 아닌 데 써 버릇한다 점이 문제다.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용어들도 억지스런 면이 있으나 존중해야 할 부분이다.

슈퍼마리오, 스타와 만나요, 슈퍼보이, 내가 진짜스타, 슈퍼맨, 스타! 서울 스타, 스타와 이 밤을, 트롯 3대 천왕, 스타! 비디오 자키, 토요일비 스페셜, 스포츠 스페셜, 도전! 퀴즈퀸, 최고를 찾아라, 올스타 가요대전, 빅스타 쇼 친구, 슈퍼스타 선발대회, 슈퍼모델 전야제, 패티김 스페셜, 여성극장, 정보특급 금요일베스트, 아침 연속극 착한 남자, 특선 외화시리즈, 여자만세, 두 남자 쇼, 뉴 논스톱 스페셜, 스타 레볼루션, 아름다운 여자, 세일즈 특급 세계로 세계로, 생방송 모닝스페셜, 심야스페셜, 발칙한 여자들 ….

4. 억지스럽게 줄인 말들

문패나 제목은 짧아야 한다는 생각 탓에 무리하게 줄여 쓰는 사례가 흔하다. 그

러다 보니 부자연스런 조사와 로마자 약자, 전화번호 따위 아라비아숫자를 넣은 꼭지를 자주 대하게 된다. 특히 로마자 약자는 상당한 외국어 상식이 없고서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이은말·별인말로 된 명사구가 대다수인데, 어색한데다 불필요하게 ‘-의’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신비의 거울 속으로, 새로운 도약에의 길, 深夜에의 招待, 아테네로부터의 메시지, 바겐세일의 활용, 소프트웨어의 이해, 금문교의 보수공사, 스펀지는 스페셜하고 재미있는(FUN) 지식이다? 웰빙 건강테크, 애니멘터리, 경제매거진 M?, 두뇌발전소 Q, 시사매거진 2580, 취재파일 4321 ….

5. 새로 생기는 ‘말계급’

말의 계급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 방송 프로그램 꼭지 이름에서 흔히 눈에 띈다. 새소식은 뉴스로 굳어진 사례인데, 나아가 헤드라인 뉴스, 뉴스라인, 뉴스데스크, 뉴스센터, 뉴스파노라마 …들로 변졌고, 극·방송극은 드라마에, 시사극은 시트콤이나 시추에이션 드라마로, 드라마는 또한 드라마시티, 미니시리즈, 드라마스페셜 등으로 가지를 친다. 이야기나 환담은 토크 또는 토크쇼로, 쟁점은 이슈로, 우스개는 개그로, 만남은 미팅으로, 충격은 쇼크로, 지도력은 리더십으로, 국제는 글로벌로, 짝은 커플로, 행복은 해피로, 사장은 시이오로, 모임은 클럽·포럼 따위로 바뀌는 등 헤아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서양 외래어가 기존의 말들을 대체하는 형편인데, 이는 새로운 말계급·말권력을 이를 정도로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6. 특이한 쓰임들

방송 프로그램 꼭지에서, 전에는 사람 뒷가지로 쓰이던 말이 독자적인 자격으로 쓰이거나, 다수 외래어가 앞가지나 뒷가지처럼 말을 만드는 구실도 한다.

꾸러기 수비대, 꾸러기 로보캡, 털보아저씨와 꾸러기들, 인간극장 꾸러기 스님들이 그렇다.

뉴스 등 영어로서 말 앞뒤에 두루 붙여 새 말을 만드는 구실을 하는 말들이 눈에 띈다.

웹매거진·웹디자인, 핸드폰·디카폰, 아침저널·피디저널·시청자저널, 깜짝쇼·요리쇼·토크쇼·코미디쇼·여행쇼, 알뜰 재테크·時테크, 행복채널 … 따위.

7. 원어, 소리만 읽어 적은 이름들

영어식 제목이 무척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뷰티풀 선데이, 웰 컴 투 코리아,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투나잇, 킹앤아이, 오버 더 레인보우 등이 그렇다. 번역을 하지 않고 소리만으로 한글로 적거나 일부만 영어로 적는 사례도 많다. 이는 무척 불친절한 방식으로서, 방송 프로그램 꼭지만이 아니라 노래 제목, 영화 제목을 가리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런 과정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특별기획 드라마 커맨더 인 치프 Commander in Chief - 첫번째 충돌, 해피 투게더 SEASON3, 아이러브 코미디, Let's Learn Korean 안녕하세요?,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사회탐구, What's up Doogie?, 열정의 무대 Burn the floor, E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PAX ASIANA, 너의 작은 손>, PRIDE OF ASIA(이브닝 와이드) SIFAC `99, 편지쇼, 게임쇼 등 조어들, English Cafe, GO! GO! Giggles, 'U월드의 미래, IT's KOREA', 쇼! 파워비디오, 금요 사이버 월드 웹투나잇 등

8. TV 등과 관련된 조어들

매체 이름인 TV가 들어가 생긴 방송 갈래들이 눈에 띈다. 이는 텔레비전만의 갈래임을 강조하려는 데서 붙인 이름이겠으나 그 말이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모색해 봐야 할 대목이다. 그림·영상·카메라 ...들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TV가요, TV소설, TV동화, TV특종, 맛있는 TV, 섹션TV, TV 속의 TV, TV탐사, TV파크, TV쇼, TV쇼핑, 휴먼TV, TV 메디컬센터, VJ클럽, VJ특공대, PD저널, 텔레에세이 ...

9. 말차례가 바뀐 꼭지들

보도 꼭지 이름에 특이한 쓰임이 나타난다. 예컨대 '9 뉴스', '8 뉴스'도 아닌 '뉴스 8', '뉴스 9' 따위가 그렇다. 이는 입말로는 읽어내기가 어렵다. 말차례가 뒤바뀌기 때문이다. 이를 읽는 방식도 문제다. '뉴스 팔'도 '뉴스 구'도 아니고, '여덟시 뉴스/ 아홉시 뉴스'로 읽기도 우습다. 결국 '뉴스 에이트, 뉴스 나인'으로 읽는 쪽으로 나갈 판세다. 이는 우리말 문법을 깨뜨리는 사례이며, 아라비아숫자를 영어로 읽는 사태로 번졌음을 보여준다.

말차례를 바꿔 쓴 제목들이 많다. 이는 문장 표현법에서 가끔 쓰는 방식으로 눈

길을 끌거나 감정을 흔들고자 할 때 쓰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문장이 아닌 실제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 무척 자주 쓰는 것이 확인된다.

그 효과는 시청자의 눈길 끌고 자극 주기, 낯설게 하기 등에서 약간의 성급이 있고, 방송을 시작할 때 제목 이름을 힘차게 외쳐 거두는 효과도 있겠다. 이에 더하여 제목이 길어지거나 늘어지는 것을 꺼리는 관습도 한몫을 할 터이다.

문제는 이런 꼭지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 연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말에서도 입말에서는 목적어나 주어를 생략하고 서술어만 말해도 될 때가 많긴 하지만, 입말투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 그 자연스런 유형은 따로 있다.(그곳에 가고 싶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리 보고 세계 보고, 저요 저요! ...)

흔히 말차레를 바꿔 꼭지 이름을 짓게 한 데는 서양말(특히 영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술어를 체언 앞에 두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 영어식으로 된 꼭지 이름도 상당수 등장하는데, 그 단적인 방증일 수 있겠다.(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아이 러브 사커, 웰컴 투 코리아, 브라보 웰빙 라이프 ...)

영어 어순에 길이 들어 따라 짓다가 이런 이름이 많이 생긴 배경에는 영어 교육 영향도 있겠다.

다음으로 수입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한 연유가 된다. 이는 적절히 번안하여 보여줘야 하는 까닭에 번역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본 따위 외국 프로그램 따라하기·본받기·베끼기에서 온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서까지 이런 식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게 된 게 아닌가 한다.

여기서 자연스럽지 못한 우리말 사용 실태를 보게 된다.

뉴스 24/ 뉴스 25/ 영상기록 병원 24시/ 사건 25시/ 뉴스 7/ 뉴스 5/ 뉴스 8/ 뉴스 투데이/ 스포츠 9/ 달려라 바우/ 도전! 주부가요 스타/ 도전! 지구탐험대/ 독점, 여성 시대/ 세상체험, 아빠와 함께/ 열려라 꿈동산/ 열려라 동요세상/ 열려라 만화동산/ 인간탐구, 이사람/ 추적 60분/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출발! 서울의 아침/ 도전! 모험의 세계/ 출동, 우리는 친구/ 집중! 여섯명의 여자/ 탐험! 동물의 세계/ 달려라! 웃음 천국/ 출발! 서울의 아침/ 세계로! 싱싱싱/ 출동! 마스크/ 대결! 20/40/ 열려라! 웃음 천국/ 생방송 달려라 코바/ 집중! 스포츠 스포츠/ 생방송 출발! 모닝 와이드/ 열려라 뽀뽀 창고/ 굿모닝! 닥터/ 추적! 사건과 사람들/ 가자! 월드컵으로/ 도전 불가능은 없다/ 충전!? 백퍼센트쇼/ 아이러브 코미디/ 특급! 연예통신/ 특명! 아빠의 도전/ 추적! 사건과 사람들/ 감동TV 아이 러브 아이/ 결정! 당신이 주인공/ 도전! 퀴즈퀸/ 클릭! 신나는 인터넷 세상/ 굿모닝 밀레니엄/ 코미디쇼 오 해피 데이/ 도전! 1000곡/ 접속!! 무비월드/ 아이 러브 사커/ 쇼! 일요천하/ 스타 GO GO/ 신동엽 김원희의 헤이! 헤이! 헤이!/ 스타 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 가자 요코하마로/ 특집 아이 러브 월드컵/ 여행쇼! 일상탈출/ 헬로우 퀴즈 짱/ 도전! 100만 달러/ 선택! 리얼 데이트/ 월화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결정! 맛대맛/ 게임쇼! 즐거운 세상/ 특명! 아빠의 도전/ 체인징 유/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특별기획 Only You/ 웰빙! 맛 사냥/ 꿈을 쏜다! 박주영, 박지성/ 아이 러브 제주/ 긴급출동! SOS 24/ 스마일 어게인/ 브라보!

웰빙라이프/ 체인지 업! 가계부/ 도전! 스타월드컵/ 서프라이즈! 미셀위 열풍 ...

열려라 꿈동산/ 출동! 에어울프/ 퀴즈! 평화여행/ 퀴즈! 아카데미/ 지구를 지켜라! 태극아이 505/ 도전! 추리특급/ 선택! 토요일이 좋다 / 출발! 비디오여행/ 헬로! 일지매/ 특종! 연예시티/ 폭소! 발명왕/ 퀴즈! 진짜를 찾아라/ 특명! 학력파괴/ 비바! 스포츠천국/ 달려라 또래친구/ 날아라 호빵맨/ 도전! 구두쇠왕/ 도전! 새로운 세상/ 특종! 오늘의 토픽/ 안녕! 노디/ 와!? ©멋진세상/ 파워! 소비자 세상/ 찾아라! 맛있는 TV/ 와우! 동물천하/ 오! 해피데이/ 출동! 로봇 V/ 요리보고 세계보고/ 쇼! 음악중심 ...

모여라 덩동댕/ 당첨!! 주택복권/ 달려라 하니/ 날아라 슈퍼보드/ 主婦도 時테크시대/ 세상체험 아빠와 함께/ 접속! 신세대/ 웰컴 투 코리아/ 힘내세요 사장님/ 피플! 세상속으로/ 열려라 동요세상/ 아이 러브 코리아/ 출발! 2002 월드컵/ 체험! 삶의 현장/ 출발! 아시아드/ 도전! 골든벨 ...

뛰어라 셀러리맨/ 쇼! 스타 출발/ 달려라 삼총사/ 뛰어라 벤지/ 출동! 바이오 용사/ 달려라 조오/ 달려라 래시/ 도전, 車車車/ 달려라, 고! 고!/ 출동 지구특공대/ 열려라, 만화동산/ 도전, 주부가요스타/ 도전, 지구탐험대/ 탄생! 연예박사/ 달려라 썩썩열차/ 달려라 바우/ 모여라 5시/ 찾아라! 파워스톤 ...

우리는 Y턴 -우연한 여행/ 출동! 초록수비대/ 달려라 스피로우/ 도전! 새로운 나/ 접속! 트립시/ 클릭! 쿨사이트/ 헬로 핑키 핑키/ 굿모닝, 실버!/ 날아라 특공대/ 모여라 덩동댕/ 사랑해 클리포드/ 안녕! 오스월드/ 열려라! 신나는 학교/ GO! GO! Giggles/ 컷다! 러그래츠/ 궁금해요 핑퐁/ 달려라! 닥터 멍/ 도와주세요! 코알라 형제/ 도전! 유레카/ 뒤져보자! 구석구석 ...

10. 그림자 글자들

활자로 박아놓은 제목은 하나지만 실제 방송화면에는 두세 가지 다른 글자가 겹쳐 나온다. 예컨대 ‘세계인’이라면 실제 화면에서는 ‘세계人’ ‘세계 in’ 등으로 겹쳐 나오며, ‘뉴스타임’은 ‘NEWS TIME’으로 화면을 내보내거나 보도 진행자 자리(데스크) 앞뒤를 글자로 꾸며놓는 형편이다. 이 정도는 점잖은 편이다.

2000년대 들어 방송은 신문과 함께 두루 문패나 프로그램 이름뿐만 아니라 무대 배경, 디자인에서 영어·한자를 비롯한 다국 언어를 겹쳐 쓰는 게 유행이 되었다. 이것이 유행으로 그칠 것 같지 않은 게 문제다.

11. 좋은 꼭지 이름들

되잖은 꼭지 이름이 많지만 괜찮은 꼭지 이름들도 상당수 있다. 특별히 좋은 이

름을 짓기보다 거슬리거나 부적절한 게 담기지 않으면 될 터이다.

상상 일요일/ 세상읽기/ 저요! 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하! 그렇군요/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의 오늘/ 걸어서 세계 속으로/ 생방송 세상의 아
침/ 이것이 바로 그것!/ 다 함께 노래를/ 스승을 찾습니다/ 세계는 하나/ 서울에서
만남시다/ 바른말 고운말/ 우리끼리 또래끼리/ 빛돌이 우주 2만리 ...

V. 대안

텔레비전 방송언어는 영상·음향·음성·문자·신체 언어로 나눈다. 이들은 두루 전자화하여 전달되므로 전자말 또는 전자언어로 싸잡을 수 있겠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쓰는 언어는 동시에 널리 전파되는 점, 공공성, 직접·반복적 교육 효과 등으로 언어윤리에 특히 충실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쉽다. 그러기에 표준어법을 써야 하며, 품위 있게 말해야 한다는 점, 사실을 정확히 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은 자막과 영상을 포함하는 문자언어에 해당한다. 방송에서는 입말 곧 음성언어를 주로 치지만 자막과 자극적인 디자인으로 다가오는 문자언어 역시 무시 못할 갈래다.

지금까지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살펴 드러난 두드러진 문제로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남발, 무분별한 외래어와 무국적 언어, 억지스런 조어, 맞춤법·표현·차별·적절성에서 어긋나는 점들이 짙었다.

표기 문제에서, 로마자 쓰는 정도를 관대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꼭 써야 할 일은 적으며, 따라서 쓰기를 자제할 여지는 많다. 프로그램 이름과 방송사의 로마자 약자는 출처가 거기라는 것 말고는 시청자에게 무관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글·한자·로마자를 잇대어 달아 보는 이의 눈을 어지럽히는 영상언어 디자인도 방송사 자체에서 자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표기 등 방송언어 문제는 굳이 국어기본법이나 방송 관계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마땅히 방송 종사자 스스로 공공성을 생각하여 말글을 다루어야 할 터이다. 프로그램 이름도 표준어, 자연스런 입말체, 간결하고 쉽고 바른 어법을 써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프로그램 이름을 확정하는 데는 제작·연출자를 포함해 대본 작가, 그래픽 처리 요원, 방송 편성 책임자들의 언어 의식이 많이 좌우할 터이다. 몇 단계 손을 거치면 지금보다 한층 나아질 여지가 많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방송사에 권할 만한 말은 프로그램 제목을 지을 때 우리말글로 된 이름 짓기를 먼저 해야리라는 말이다. 그래야 시청률 등 목적 지상주의, 튀는 문패, 낯선 이름, 특별해지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을 터이다.

방송언어와 직접 관련이 깊은 방송위원회 등에서 이런 쪽의 심의를 강화해 최소한의 기준이나 지침을 내리고 이를 심의·규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상당수 서양 외래어는 언어 사대주의를 부추기거나 정체성을 흐릴 위험성이 있고, 전문성을 자랑하거나 지식 과시용으로 쓰는 사례가 너무 흔하여 타올로 다뤄도 모자랄 형편이다. 시청자들의 감시활동도 중요하겠다.

현재 시행되는 방송 관계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살펴보자.

⑦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방송법 33조 심의규정)

제52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관련 법규에서 언어에 관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킨다면 방송프로그램 제목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언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도 포괄적인 여러 사항에서 대부분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한편, 방송 관계 법에서 글자 또는 표기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점은 서둘러 챙겨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문서는 한글로만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지키도록 이끌 근거는 있다 하겠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방송 관계 법규나 기구에서도 다루고 글자와 외래어 제한 범위 등을 자세한 지침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언어 분야에서는 규제가 구체적이어야 통하며, 그것도 모자랄 때가 많은 까닭이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방송 프로그램 꼭지 이름에서 로마자와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은 문제다. 그 종류를 간추린 결과 2300여 가지였는데, 여기서 무척 자주 쓰이는 로마자 약자 유형과 외래어가 300여 가지 정도였다. 뉴스·드라마·쇼·스페셜 ...

들도 꽤 굳어지고 익은 말들이지만 고유어로 바꿔 쓸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2000여 가지 역시 공고한 외래어로 자리잡았거나 손을 대지 못할 만큼 많은 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성 없이 버릇으로 쓰는 자세가 더 큰 문제일 터이다. 그만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다듬어 쓰는 자세를 지닌다면 제목 역시 깨끗하게 할 여지는 많다.

대안은 단순하다. 쓰지 말아야 할 것, 쓰기를 조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가려 이름을 짓고 붙이는 일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갈래와 실태별 정밀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 개발은 방송 관련 분야 종사자의 몫으로 남긴다.

[참고자료]

- 임태섭 외(2001), 방송프로그램 언어분석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4>.
 주창윤(2004),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2004년 겨울호.
 방송위원회(2006), <방송백서>. 제2기 방송위원회(2003.5~2006.4).
 한국방송공사(1995~2006년), <KBS 연지>
 에스비에스(2001), <SBS 10년사(1991~2001년)>
 한국교육방송공사(1995~2006년), <EBS 연지>
 KBS, MBC, SBS, EBS 누리집
 KBS 수원센터 누리집
 KBS, MBC, SBS, EBS 1986~2006년 기본방송순서(또는 방송편성표)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1986~2006년) 방송표
 자료협조 한국방송 도서관, 문화방송 편성부, 교육방송 홍보팀, KBS 콘텐츠팀

<끝>